

연구보고 R438 / 2002. 12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김 성 용 부연구위원
이 계 임 부연구위원

연구담당

김 성 용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농가의 소비지출 변화 추이, 농가특성별 소비
지출구조 비교, 농가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석
이 계 임 부연구위원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머 리 말

농가의 소비지출은 농가소득이나 자산규모 등 농가의 제반 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되지만 농가가 투자를 통해 경영을 확대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농가소비는 농촌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기도 하다.

농가는 고령화,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교육비의 과다지출, 유동성 제약 측면에서 도시가구와 다르고,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나 소비행태를 결정하는 요인도 도시가구와 상이하다.

농가경제에서 농가소비가 가지는 중요성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및 복지관련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소비성향,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 구조,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농가소비의 결정요인 등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도시근로자 가구와 일본농가와의 소비행태를 비교하여 농가 소비지출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농가 소비지출 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및 농촌복지 관련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이용에 협조해 주신 통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는 통계청의 1990년~2000년 농가경제조사에서 얻어진 표본농가의 일계부와 원부 자료를 사용하여 농가소비와 농가소득과의 관계,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의 차이,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농가 소비의 결정요인 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고 농가소비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가소비는 농가소득에 비해 안정적이거나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도시근로자 가구나 일본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지난 11년 동안 농가 소비는 지출규모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구조도 고도화되어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농가소비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농촌지역 가사관련 서비스업의 확대, 도시형 문화의 도입, 정보화 등으로 농촌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선택재, 비내구재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다.

농가 소비는 가구주의 연령, 농가소득 규모뿐만 아니라 영농형태, 영농지대 등 농가 유형별로도 지출수준과 항목별 지출 비중에서 차이가 났다.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소득의 불균등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비해 낮다. 지출항목 중에서 교제증여비, 교육비, 기타잡비가 전체 소비지출 불균등에 대한 기여율이 가장 높고,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 교양오락비의 기여율이 가장 낮다.

농가소비합수 추정 결과 농가소비는 당기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산 및 부채 등 순자산 변동에도 유의적으로 반응하며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22~0.26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원 수 증가, 가구주 학력, 겸업가구 등도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농가 중에 부채상환부담, 낮은 신용평가 등 유동성 제약으로 차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소비의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있는 농가는 22~24%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가 그룹별로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노령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이 비노령농가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당기 가처분소득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잉여 적자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증가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증가, 가구주 학력, 겸업가구 등은 농가잉여 흑자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나 적자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농가지출항목별 소비함수 추정 결과 소득이나 자산의 변동에 크게 영향 받는 항목은 지출형태별로는 서비스, 지출목적별 구분으로는 선택재이며, 이들 항목의 경우 향후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소비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소비지출 구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소득안전망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소득보전 정책뿐만 아니라 농가의 신용력 제고, 금융창구 확대, 투융자 지원 등 금융재정관련 정책은 당기 소비는 물론 중장기소비수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셋째 농가 그룹별 소비행태가 다르므로 정책대상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때 농가후생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범위와 방법 5

제2장 농가 소비지출의 변화

1. 농가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7
2. 농가 소비지출구조의 변화 10

제3장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 구조

1.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구조와 특징 19
2.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구조의 비교 22

제4장 농가 소비지출 분포의 불균등도 분석

1. 불균등도 지수와 불균등도의 요인 분해 28
2. 소비지출 분포의 불균등도 변화 추이 30
3. 지출항목별 불균등도의 변화 추이 32
4. 가구 유형별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변화 추이 37

제5장 능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44
2. 분석자료 및 추정 방법 47
3. 분석변수 49
4. 분석결과 51

제6장 요약 및 결론 61

부록

부록 1. 능가 소비지출의 수요 시스템 분석 71
부록 2.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요인 분해 방법 75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및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추이	9
표 2- 2. 농가 소비지출 항목의 구성	11
표 2- 3. 항목별 농가 소비지출액의 변화 추이	12
표 2- 4. 목적별 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16
표 2- 5. 재화 형태별 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17

제3장

표 3- 1. 농가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 2000	20
표 3- 2.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 2000	22
표 3- 3.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소득4분위별 비교	23
표 3- 4.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영농형태별 비교	25
표 3- 5.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영농지대별 비교	26

제4장

표 4- 1. 농가소득과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변화 추이	31
표 4- 2. 농가의 소비지출 항목별 불균등도 순위	33
표 4- 3.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불균등도 순위 ...	34
표 4- 4.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에 대한 지출항목별 기여도 ...	35

표 4- 5.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불균등에 대한 지출 항목별 기여도	36
표 4- 6.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37
표 4- 7. 경지규모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39
표 4- 8. 영농 형태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41
표 4- 9. 영농지대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43

제5장

표 5- 1.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	51
표 5- 2. 농가소비함수 추정식	52
표 5- 3. 소비함수 추정 결과	54
표 5- 4. 농가 그룹별 소비함수 추정 결과	58
표 5- 5. 지출 형태별 소비함수 추정 결과	60

그림 차례

그림 2- 1. 농가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추이	8
그림 2- 2. 농가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	14
그림 2- 3.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	15
그림 2- 4. 일본 농가의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	15

부표 차례

부표 1. 농가 소비지출 항목별 가격 및 지출탄력성 추정결과	74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농가의 소비지출은 농가소득이나 농가자산 규모 등 농가의 제반 경제 여건에 의해 결정되지만 농가가 투자를 통해 경영을 확대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농가소비는 농촌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기도 하다. 농가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로 농가소득이 사용되고 있으나 농가 소비지출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농가소득과 다른 함축성을 제공할 수 있다(Slesnick; Akita, Lukman, and Yamada; McGregor and Borooh).

첫째, 효용은 소득으로부터 직접 얻어지기보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발생한다. 프리드만(Friedman)의 ‘항상소득 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입각한 많은 연구들이 소비지출의 분포와 소득의 분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단기에 안정적인 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가계의 항상소득을 나타내는 보다

적절한 지표임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인구의 감소, 청장년층의 감소,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많은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그 결과 후생척도로서의 농가소득을 사용한 분석은 이러한 농촌의 인구학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후생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다.

셋째, 가구소득을 후생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격이 후생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필수재의 상대적인 가격 상승은 부유한 계층보다 가난한 계층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후생 불균등 정도를 높이게 된다. 1990년 이후 에너지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과 교육비 지출 상승 등이 농가의 상대적 후생수준에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분배만을 본다면 이의 영향은 간과되기 쉽다.

농가 소비지출이 가지는 다양한 함축성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비지출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및 복지 관련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이해하고 농가 계층간 소비지출 격차의 요인은 무엇인지, 소비지출의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는 고령화,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교육비 과다지출, 유동성 제약 등의 측면에서 도시 가구와 상이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나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 또한 도시 가구와 크게 다를 것임으로 비교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다양한 지표와 모형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농가소비와 농가소득과의 관계,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와 결정요인 등에 관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농가소비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유병호(1995)는 1983-92년 농가경제조사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지출항목별 소득탄력성, 농업소득 구성비가 농가지출 및 지출항목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 가계비 지출항목의 지역별·영농 형태별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농가의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가구주 연령, 교육정도, 순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은숙(1990)은 1963년부터 1982년까지 20년간의 농가경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함수와 비목별 지출함수를 추정하여 두 부분의 차이와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의 한계소비성향이 농촌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농가에서는 주거비, 교육비, 잡비가, 도시에서는 주거비, 피복비, 잡비가 소득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숙(1986)은 1983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비목별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농가의 농업소득, 농외소득, 순자산, 지대, 가족구성, 가족수, 가구주의 연령 및 교육수준, 취업자 수가 22개의 가계비 세목 중 13개 이상 항목에 대해 유의성이 있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명훈(1994)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 전후의 한국가계의 소비급증 현상을 분석하였다. 전체 소비자를 최적소비그룹, 과소비그룹, 유동성제약그룹을 나누어 소비자 그룹별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동성제약 완화의 효과 등 합리적 소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차은영(1991)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항상소득 가설에 입각하여 한국가계의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지출 모형을 도출하고,

소비행동에 있어서 항상소득 가설의 타당성과 가계특성 변수와 가계 소비 행동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외국의 연구는 미국 일리노이주 곡물재배 농가에 대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농업소득의 불안정성과 농가소비 행태와의 관련성 여부를 분석한 Chen, Meike and Turvey(1999), 영국의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생애소득 가설에 입각한 소비함수 추정과 가구소비지출의 기간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 행태를 분석한 Blundell & Browning(1994) 등이 있다. 특히 Browning & Crossley (2001)는 생애소비함수에 대한 기존 연구와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해 밝혀진 농가 소비지출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이 도시가구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낮다는 점이다. 프리드만은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농가의 낮은 소비성향이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둘째, 농업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농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에 비해 작다는 점이다. 셋째, 생애주기소득 가설의 농가의 소비 행태를 비교적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지출의 불균등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일본에서 인구 노령화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와 관계 분석한 Ohtake & Saito (1998), 인도네시아의 농가와 도시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 분포의 불균등도를 다룬 Akita, Lukman, and Yamda(1999) 등이 있다.

이 밖에 Quadratic AIDS모형을 사용하여 가계지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규명한 Blundell, Pashardes, and Weber (1993)와 Banks, Blundell, and Lewbel(1997) 등이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농가의 소비지출은 가구원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불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흔히 농가 가계비를 말한다. 농가 가계비는 음식물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제증여비와 기타 잡비로 구성되며 현금지출 이외에 자가소비 평가액도 포함된다.

이 연구의 범위는 농가경제조사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 국한된다. 가설은 농가 소비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토대로 하여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음의 내용들로 정하였다.

- 가설 1: 농가소비는 농가소득에 비해 안정적인가?
- 가설 2: 한국 농가의 소비구조는 도시근로자 가구나 일본 농가의 소비구조와 다른가?
- 가설 3: 농가의 소비구조는 농가 유형별로 다른가?
- 가설 4: 농가의 소비지출 분포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분포 보다 불균등한가?
- 가설 5: 농가의 소비지출은 항상소득 가설이나 생애소득가설에 의해 잘 설명되는가?
- 가설 6: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생애소득가설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농가들이 있는가?
- 가설 7: 농가의 소비행태는 소비지출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는 통계청의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농가경제조사에서 얻어진 표본농가의 일계부와 원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의 일계부와 농가원부 자료는 농가의 비목별 소비지출액 뿐만 아니라 농가의 인구학적 정보, 농가자산, 농가소득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소비지출분석에 아주 좋은 자료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일본농가와 비교 분석에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1990, 1995, 2000년 원자료와 일본의 「농업경영통계조사보고」와 「농가경제조사보고」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2 장

농가 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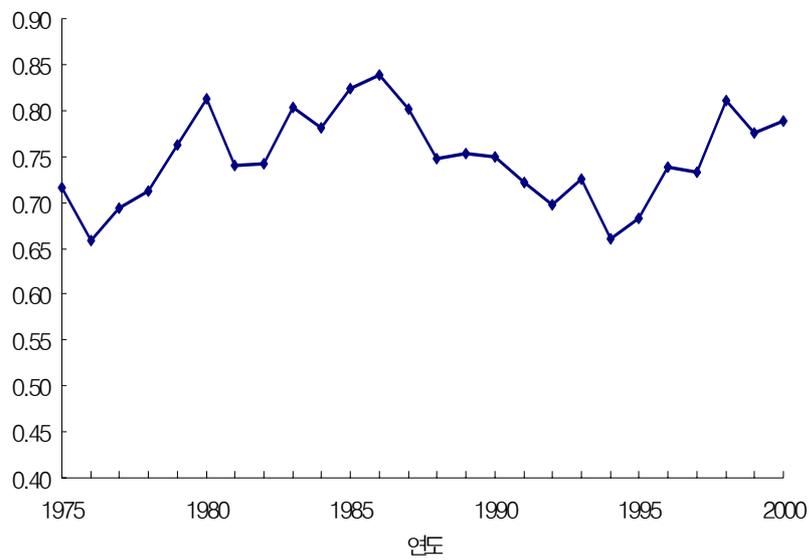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농가의 가계비 지출 및 가처분 소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항목별 소비지출 구조, 목적별 및 재화형태별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 및 일본 농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 농가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우리나라 농가의 소비지출은 지난 수년간 농업성장에 따른 농가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가구당 평균 지출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1975년 우리나라 농가의 가구당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616천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18,003천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4.5%의 성장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에 농가의 가처분소득은 853천원에서 22,838천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14.1%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농가소득과 소비지출과의 관계는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소비지출의 비율로 정의되는 평균소비성향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1975-2000년 농가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그림 2-1. 농가 평균소비성향의 추이



2-1>이다.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1970년대 중반이후 크게 증가하여 왔으나 1986년 83.9%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1990년대 중반에는 66.1%까지 떨어졌으나 1990년대 이후 1995년 68.3%, 2000년 78.8%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평균소비성향의 움직임은 소비지출액의 변동보다는 소득변동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한 것은 95년 이후 농업성장률의 둔화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이 부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을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1990년대 전

반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69.8%로 소득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는 가운데 소비수준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72.0%보다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농가소득의 부진으로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76.9%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72.4%보다 높아졌다.

1991~200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68.5%~76.4%로 변동 폭이 3%포인트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인 반면, 농가는 같은 기간 66.1%~81.1%를 나타내어 6.5%포인트 범위 내외의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을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1990년대 전반 75.1%, 1990년대 후반 78.2%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비성향 보다 높은 수준이며, 변동 폭도 2.4%포인트 범위에서 안정적이다.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이 도시근로자 가구나 일본 농가의 평균소비

표 2-1.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및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실질 가처분소득	실질 가계비지출	평균소비성향		
			한국농가	한국도시 근로자가구	일본농가
91-95	18,585.5 (△6.97)	12,925.1 (△5.79)	69.8(▽1.38)	72.0(▽0.42)	75.1(△0.72)
96-00	19,459.1 (▽4.16)	14,898.6 (▽2.87)	76.9(△1.68)	72.4(△1.59)	78.2(△0.56)
변이계수 (91-00)	13.3	12.4	6.4	3.1	2.4

주: () 안은 연평균 증감률을 나타냄.

성향보다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①농작물 작황의 변동으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②우리나라 농가는 일본 농가에 비해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이 낮고, ③농가소득 안전망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가소득과 소비지출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1-2000년 변이계수로 측정된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변동 폭은 각각 13.3%, 12.4%로 나타나 소비의 변화가 소득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

2.1. 항목별 소비지출액의 변화

농가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제증여비, 기타잡비로 구분되며 기타잡비에는 관혼상제비용이나 이미용비 등이 포함된다. 각 가계비 지출항목별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항목별 농가 소비지출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1991~2000년)동안 명목지출액 기준으로 광열수도비와 교통통신비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1.75%와 11.05%로 증가추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표 2-3>. 보건의료비, 교제증여비도 전체 소비지출의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피복비와 주거비의 증가율은 낮아 각각 1.85%와 4.82%이다.

표 2-2. 농가 소비지출 항목의 구성

지출항목	구성내용
식료품비	미곡, 맥류, 혼합곡, 잡곡, 두류, 서류, 가공주식품, 채소류, 육류, 유란류, 생선류, 가공부식품, 유지조미료, 과실류, 주류, 기호품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수도비, 가계광열비(전기료, 연탄, 유류, 가스류, 기타원료)
교육비	초등학교-대학교 (원) 납입금(출타자녀 포함), 참고서, 기타 교육비 (교복, 학생가방, 체육복, 학원비, 수학여행비, 운동회비, 과업수업료, 교육용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등)
교양오락비	신문도서비, 문방구비, 오락비(시청료/관람료 등), 기타오락비 (장기, 바둑, 운동기구, 완구, 자전거, 유모차, 레저용품, 노래방, 게임방, 사진현상비, CD 및 노래테입 구입)
주거비	주택비, 가구비, 가정용 기구, 침구류, 가사소모품
피복신발비	의의류, 내의류, 샴류, 직물류 및 실, 기타 피복, 신발류, 피복 및 신발서비스료
보건의료비	의료보험료, 약국이용, 병(의)원 진찰, 입원비, 한의원 이용, 기타 보건
교통통신비	기차, 버스, 승용차 유지비, 기타 교통비(배삯, 택시, 항공료, 여행비, 숙박비 등), 전화료, 우편료, 기타 통신비(전보, 무선 호출료, PC 통신, 인터넷 사용료)
교제증여비	경조비, 출타가족송금 (학비제외), 기타 (교제비, 접대비, 교회, 절의 헌금, 각종 성금, 동창회비, 친목단체 회비 등)
관혼상제비	혼인, 장례, 제사, 차례, 환갑 등에 쓰인 현금 및 현물 일체
기타 잡비	미용위생비, 담배 장신구, 손해 보험료, 기타지출(도난, 분실, 굿, 도장, 제증명 수수료, 재해손실금, 벌금 및 과태료 등)

광열수도비의 상승은 농가의 가전제품 보유 확대에 의한 전기요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통신비의 증가는 농가의 자가용 보유 확대와 더불어 농촌 지역에 핸드폰·컴퓨터 통신 보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농가에 컴퓨터의 보급확대, 휴대전화 보유 및 사용증가가 예상되므로 통신관련 지출비용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비의 상승은 농가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병원 진료비, 한약 구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노령화 추세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제증여비의 증가는 농촌사회의 교육·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① 자녀의 도시유학에 따른 교육비 및 생계보조비 지출이 증가한 것, ② 품앗이나 현물 등으로 상부상조하던 관혼상제 문화에서 현금으로 대체되는 도시형 문화로의 변화, ③ 사회 전반적인 소비증가 추세에 편승한 단체관광 증가와 경조금 단위 증가에 기인한다.

농가 소비지출의 변화를 1990년대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소비지출 증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는 1995

표 2-3. 항목별 농가 소비지출액의 추이

구분	기간	전체	식료품	광열수도	교육	교양 오락	주거	피복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제 증여
연평균 증감율	91-95	9.44	7.72	12.98	9.76	13.05	9.09	8.63	10.72	11.14	10.19
	96-00	1.11	1.30	6.51	1.10	-0.99	0.52	-5.97	3.90	7.86	0.46
	91-00	6.70	5.40	11.75	6.52	6.34	4.82	1.85	8.17	11.05	7.99
변 이 수	91-95	13.68	10.30	19.04	13.42	22.28	14.70	11.43	25.18	25.00	23.45
	96-00	7.77	6.40	7.48	8.92	13.36	15.69	26.31	7.93	15.06	3.68
	91-00	12.35	8.56	24.35	12.30	16.53	14.12	19.74	24.05	35.54	27.7

년 이후에는 농가소득의 감소와 97년 이후 외환위기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항목의 경우 지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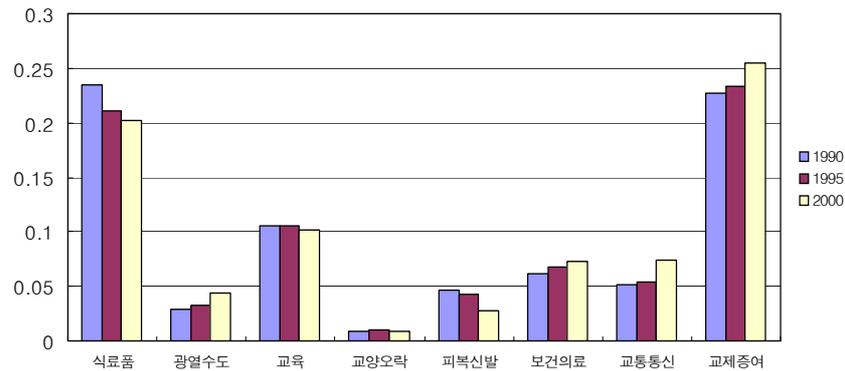
변이계수로 측정된 항목별 명목지출액의 변화 추이를 보면 교통통신비(35.5)와 교제증여비(27.7), 광열수도비(24.4)가 연도별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음식물비(8.4)의 연도별 변화 폭이 가장 작다.

2.2. 지출 항목별 구성비의 변화

농가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식료품비 20.1%, 광열수도비 4.4%, 교육비 10.3%, 주거비 6.8%, 피복신발비 2.8%, 그리고 가계잡비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성 가계지출이라 할 수 있는 가계잡비를 세분하여 보면 교제증여비가 2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잡비(14.5%), 교통통신비(7.4%), 보건의료비(7.3%) 순이다.

지난 10년간 가계비 지출항목별 구성비의 변화 추이를 <그림 2-2>를 통해 살펴보면 농가소비 지출 규모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지출구조도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는 1990년 23.5%이었으나 2000년에는 20.2%로 낮아졌고, 주거비와 피복비도 같은 기간 각각 7.8%, 4.6%에서 6.8%, 2.8%로 감소를 보였다. 반면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제증여비의 비중은 각각 6.2%, 5.1%, 22.7%에서 7.3%, 7.4%, 25.5%로 증가하였다.

그림 2-2. 농가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



농가 소비지출에 대한 수요시스템(Demand System) 분석에 따르면 교양오락비와 보건의료비가 지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경우 교양오락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와 비교하면 농가는 보건의료비와 교제증여비 비중이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는 음식물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농가보다 높다<그림 2-3>.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항목별 비중에 대한 지난 10년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시가구는 농가에 비해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비중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농가의 소비지출구조를 일본 농가와 비교하면 일본 농가는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등 문화생활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한국 농가보다 높은 반면, 한국 농가는 교육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일본 농가보다 높다. 일본

¹ 농가 소비지출에 대한 수요 시스템 분석 결과는 부록을 참조할 것.

그림 2-3.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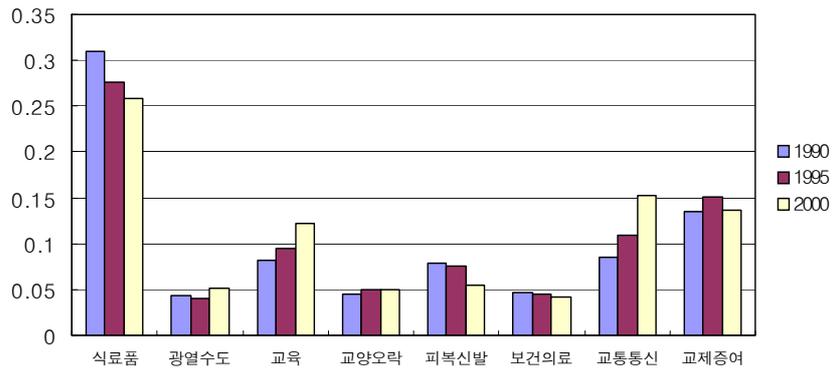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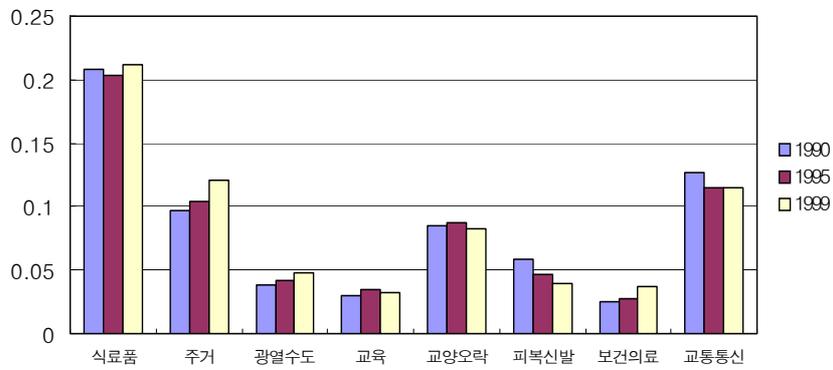


그림 2-4. 일본농가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



농가의 지출 항목별 비중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농가의 경우 한국 농가보다 주거비 비중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그림 2-4>.

2.3. 목적별 소비지출의 변화

농가 소비지출은 지출 항목별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필수적 소비지출과 선택적 소비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필수적 소비지출에는 식품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선택적 소비지출에는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교제증여비, 기타잡비 등이 포함된다.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농가 소비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필수재에 대한 지출에 비해 선택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4>. 선택재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것은 소비지출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농촌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체 농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필수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고,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필수재에 대한 농가의 소비지출 비중은 49.6%이었으나 2000년에는 46.9%로 감소하였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필수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57.6%에서 52.8%로 감소하였다.

농가의 소비 목적별 지출을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농가는 필수재에 대한 지출비중이 도시근로자 가구 보다 낮은 반면, 선택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농가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2-4. 목적별 소비지출의 변화

단위: 천원, %

	농가			도시근로자가구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필수재	3,686.7 (49.6)	6,314.2 (46.6)	7,654.2 (46.9)	4,896.6 (57.6)	8,047.6 (51.5)	10,751.2 (52.8)
선택재	4,554.8 (50.4)	8,464.2 (53.4)	10,538.0 (53.4)	3,604.1 (42.4)	7,583.0 (48.5)	9,607.7 (47.2)

2.4. 재화형태별 소비지출의 변화

농가가 소비하는 재화는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재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구재에는 승용차, 전신전화장비, 음향기기, 컴퓨터, 기타 전기용품 등이 포함된다. 비내구재는 식료품, 문방구류, 주거유지를 위한 재화 등이다. 서비스재는 주거 관련 서비스 지출이나 교육비, 오락비, 교통통신 관련 서비스지출 등을 말한다.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재화 형태별 소비지출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내구재에 비해 비내구재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표 2-5>. 특히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 모두 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화 형태별 소비지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은 1990년 53.0%, 1995년에는 59.2%, 2000년 62.3%로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의 지출 비중은 1990년 35.6%, 1995년 30.0%, 2000년 30.2%로 감소하였다. 농가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의 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 가사 관련 서비스업의 확대 및 도시

표 2-5. 재화형태별 소비지출의 변화

단위: 천원, %

	농가			도시근로자가구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내구재	919.6 (11.4)	1,616.9 (10.7)	1,395.4 (7.5)	1,678.2 (19.7)	2,888.8 (18.9)	3,859.4 (15.2)
비내구재	2,679.2 (35.5)	4,031.4 (30.0)	4,847.5 (30.2)	2,963.2 (34.9)	4,279.4 (28.0)	8,102.4 (29.2)
서비스	4,642.7 (53.0)	9,130.1 (59.2)	11,949.3 (62.3)	3,859.4 (45.4)	5,940.1 (53.1)	11,319.4 (55.6)

형 문화의 도입, 정보화 등에 기인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재화 형태별 지출비중을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여 보면 200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서비스와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각각 55.6%와 29.23%으로 농가의 63.3%와 3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내구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15.2%로 농가의 7.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3 장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 구조

이 장에서는 2000년 농가경제조사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농가의 가계비 지출구조를 가구주 연령별, 소득규모별, 영농형태별, 영농지대별로 나누고 소비 수준과 지출 항목별 비중 측면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1.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구조와 특성

한국 농가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의 특징을 2000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표 3-1>에서 보듯이 가구주의 연령이 50대 전반까지는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비지출 규모도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 전체 농가의 소비지출 평균을 100으로 할 경우 가구주 연령이 35세 미만은 92.8, 45세 이상~50세 미만은 120.1, 55~59, 65~69세는 각각 90.2, 80.9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지수 변화는 가구주 연령이 50대 전반까지는 생활규모가 가구주의 연령과 함께 확대되고 있

지만 그 이후 축소됨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지출의 증가가 가구인원수의 증가와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농가 소비지출과 소득의 가구주 연령별 차이를 비교하면 가구주 연령별 격차가 소득보다 소비지출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구주 연령별 소득평균을 100으로 하고 연령별로 소득과 소비지출을 지수화했을 때 가구주 연령별 소득의 변이계수(17.8)가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변이계수(18.9) 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서 파악된다.

농가의 가구주 연령 계층별 평균소비 성향을 보면 가족부양 부담이 큰 40대 후반가구가 91.9%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다.

표 3-1. 농가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 2000

단위: 천원, %

	-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변이계수
가구소득	21,504	24,286	24,459	24,043	26,734	20,643	22,891	18,200	14,063	17.8
가계비지출	16,889	18,846	19,252	21,845	22,392	16,410	17,495	14,726	11,697	18.9
식료품비	24.5	27.3	26.5	22.0	20.7	23.8	23.2	24.8	27.4	10.9
광열수도비	5.5	5.8	5.6	4.8	4.7	5.4	5.3	5.7	6.2	9.4
교육비	4.4	9.3	13.7	19.4	16.8	4.4	4.4	2.0	2.1	71.7
교양오락비	1.0	1.7	1.4	1.0	0.9	0.7	0.8	0.8	0.7	34.7
주거비	7.0	8.7	8.7	7.6	6.7	7.0	6.7	7.3	7.3	10.3
의복비	3.0	3.9	3.8	3.2	3.0	2.5	2.6	2.3	2.2	20.3
보건의료비	8.7	7.0	5.8	6.0	6.1	9.0	8.0	9.8	11.5	24.3
교통통신비	7.3	10.1	9.7	9.1	8.6	6.9	7.4	6.4	6.0	17.9
교제증여	25.9	16.3	15.6	17.4	21.0	27.4	28.4	28.2	26.5	23.1
기타잡비	12.6	9.9	9.3	9.4	11.5	12.8	13.2	12.8	10.0	16.8
평균소비성향	79.2	78.6	79.6	91.9	84.8	81.5	77.2	81.6	83.9	24.3

농가의 가구주 연령별로 항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30대 가구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는 교육비, 피복신발비, 주거비, 교통통신비에 대한 비중이 높다.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30대와 40대에 높은 것은 이 세대가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 컴퓨터 이용 등 편리성을 추구하는 세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 가구는 교육비와 교제증여비 비중이 높고, 60대 가구는 교제증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70대 이상 가구에서는 건강유지와 관련된 보건의료비와 식료품비의 비중이 높다.

항목별 농가 소비지출 비중의 가구주 연령별 격차를 변이계수를 사용하여 살펴보면 교육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순서이다. 반면, 광열수도비, 주거비, 식료품비는 가구주 연령별 지출 비중의 격차가 가장 작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을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3-2>에서 보듯이 가구주 연령이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20대 초반 가구를 제외하면 50대 전반 가구가 70.1%로 가장 높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항목별 비중을 가구주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20대는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높고, 30대는 교양오락비의 비중이 높다. 40대는 교육비의 비중이, 50대에서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계수로 측정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지출 비중의 격차를 살펴보면 교육비가 가구주 연령에 따라 격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교양오락비이다. 반면, 가구주 연령별로 지출 비중의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 지출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광열수도비이다.

표 3-2.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 2000

단위:천원, %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변이 계수
가구소득	16,755	23,778	26,936	28,746	29,807	33,803	32,699	27,202	19.6
가계비지출	13,249	16,153	17,592	19,282	20,214	23,102	22,916	18,238	17.6
식료품비	26.9	28.0	28.2	28.0	27.3	25.8	26.2	28.9	3.9
광열수도비	5.3	4.9	5.2	5.1	5.2	4.7	4.8	5.9	7.3
교육비	10.0	3.0	6.3	12.0	15.8	16.9	10.8	5.5	48.9
교양오락비	5.7	5.7	5.5	6.1	5.4	5.3	4.4	3.6	15.6
주거비	8.1	8.0	7.6	7.7	6.2	6.0	6.8	6.7	11.5
피복신발비	6.5	6.4	5.8	5.4	5.6	5.7	5.7	5.8	6.6
보건의료비	4.5	4.4	4.6	3.8	3.6	3.4	4.7	5.1	14.0
교통통신비	19.8	21.3	17.4	16.1	15.1	15.9	16.0	14.5	13.9
기타잡비	13.1	18.2	19.3	15.8	15.7	16.3	20.5	24.1	19.2
평균소비 성향	79.1	67.9	65.3	67.1	67.8	68.3	70.1	67.0	6.2

2.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구조의 비교

2.1 소득규모별

농가소득 규모에 따라 농가를 4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하위 25%에 해당하는 계층을 I 분위로, 26-50%, 51-75%, 75-100%에 해당하는 계층을 각각, II, III, IV 분위로 정하여 소득규모별 농가 소비지출의 구조를 분석하였다<표 3-3>. 농가의 소비지출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1% 수준에서 가구 소득규모별

소비지출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규모별 식료품비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I 분위 즉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높은 지출 비중을 보였다. 2000년 농가 중 I 분위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27.5%인 것에 비해, II, III, IV 분위는 각각 24.5%, 22.5%, 20.0%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비중을 보였다.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항목에서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지출 비중을 보였다.

교육비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지출 비중을 보였다. 2000년 농가 중 IV 분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1.0%에 이르렀으며, III 분위는 10.5%이었으나, II, I 분위는 각각 7.8%, 5.5%의 상

표 3-3.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소득 4분위별 비교

단위: 천원, %

소득사분위수	I	II	III	IV	변이계수
가구소득	7,045	15,744	23,949	42,634	67.9***
소비지출액	11,489	14,988	19,337	26,955	22.0***
식료품비	27.5	24.5	22.5	20.0	13.4***
광열수도비	6.5	5.5	5.0	4.2	18.4***
교육비	5.5	7.8	10.5	11.0	30.0***
교양오락비	0.9	0.8	0.9	1.0	0.5*
주거비	7.2	7.7	6.9	7.3	5.0*
피복신발비	2.5	2.8	2.9	3.1	9.6***
보건의료비	9.6	8.6	7.5	6.0	19.5***
교통통신	7.1	7.3	8.0	8.6	9.1***
교체증여	23.9	24.8	23.5	23.2	3.0
기타잡비	9.5	10.1	12.3	15.6	23.4***

주: ***와 **는 소득규모별 소비지출(비중)의 격차가 각각 유의수준 1%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학력신분제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을 의미한다. 교양오락, 교통통신, 피복신발에 대한 지출 비중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재적 성향을 띠는 피복신발비에 대해 고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농가들이 소득 향상에 따라 기본적 욕구충족의 단계에서 벗어나 자기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여 고급의 피복 및 신발제품을 구매하려 하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복 및 신발은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생활필수재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 이상의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선택재 내지 고급재적 성향을 띠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변이계수로 측정된 소득계층 간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비가 소득계층 간 격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보건 의료비, 광열수도비, 음식물비 순서이고, 교제증여비가 소득계층간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영농형태별

농가를 영농 형태별로 수도작농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 축산농가, 기타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 소비지출의 구조를 비교하였다<표3-4>. 농가의 소비지출이 영농형태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1% 유의수준에서 소비지출 규모가 영농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지출 규모를 영농 형태별로 비교하여 보면 화훼농가가 가구소득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액은 20,08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작농가가 가장 낮아 15,56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지출 비중이 영농 형태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통계적

으로 검증한 결과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항목에서는 지출비중이 영농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주거비, 기타잡비 항목에서 지출 비중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별 지출 비중을 영농 형태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지출 비중에서 화훼농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작농가는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에서 다른 농가보다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제증여비는 벼농사 가구가 가장 높고 화훼농가에서 가장 낮았다. 관혼상제비 등 기타 잡비의 경우는 축산농가의 지출비중이 상대

표 3-4.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영농 형태별 비교

단위: 천, %

	수도작 농가	과수 농가	채소 농가	특작 농가	화훼 농가	전작 농가	축산 농가	기타 농가	변이 계수
가구소득	19,619	23,525	19,796	26,745	16,805	19,921	28,899	20,743	18.5***
소비지출액	16,480	18,845	17,171	18,206	20,089	15,562	19,211	17,611	9.4***
식료품비	23.2	22.2	23.5	23.5	25.84	23.3	23.2	23.5	4.4**
광열수도비	5.3	5.0	5.5	5.1	4.4	6.4	5.5	4.4	11.9***
교육비	6.6	10.6	10.6	10.5	14.2	4.8	9.7	6.4	31.0***
교양오락비	0.7	1.1	0.8	0.8	1.3	1.2	0.9	1.2	20.1***
주거비	7.2	7.5	7.4	8.3	7.9	8.6	7.4	4.4	16.2
피복신발비	2.5	2.8	2.7	2.6	3.1	2.7	2.9	4.3	18.7***
보건의료비	8.9	7.3	7.7	7.1	6.9	9.1	8.2	11.2	17.2***
교통통신	6.3	7.7	7.8	7.6	9.9	7.3	8.4	7.1	15.1***
교제증여	27.6	23.8	23.0	23.0	16.5	26.0	21.4	26.4	15.1***
기타잡비	11.9	12.1	11.2	11.5	9.9	10.7	12.5	11.2	7.2

주: ***와 **는 영농형태별 소비지출(비중)의 격차가 각각 유의수준 1%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영농 형태별로 지출 항목별 비중의 격차를 살펴보면 교육비가 농가 유형별로 격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교양오락비, 피복비, 보건의료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비의 영농형태별 격차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영농지대별

영농지대를 도시근교지대,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로 나누어 농가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하였다<표 3-5>. 농가의 소비지출이 영농지대별 차이가 나는지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5%수준에서 농가 소비지출의 영농지대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소

표 3-5.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영농지대별 비교

단위: 천원, %

	도시근교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변이계수
가구소득	22,481	22,889	22,462	20,973	3.8
소비지출액	19,743	18,483	17,966	17,337	5.6*
식료품비	24.5	22.3	24.1	23.7	4.1***
광열수도비	5.8	5.0	5.4	5.2	6.4***
교육비	9.2	8.3	8.6	9.2	5.3
교양오락비	1.3	0.8	0.9	0.7	25.5***
주거비	7.3	7.1	7.3	7.5	2.0
피복신발비	3.2	2.6	2.9	2.7	10.0***
보건의료비	8.0	8.7	7.8	7.2	7.7***
교통통신	8.9	7.3	7.8	7.5	9.1***
교제증여	20.8	25.9	23.3	24.2	9.0***
기타잡비	11.0	12.0	12.0	12.1	4.2

주: ***와 *는 영농지대별 소비지출(비중)의 격차가 각각 유의수준 1%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득수준은 영농지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지대별로 소비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근교에 거주하는 농가의 평균 가계비 지출이 19,744천원으로 가장 높고,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의 평균 가계비 지출이 가장 낮아 20,78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지출 비중이 영농지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교육비, 주거비, 기타잡비를 제외한 지출항목에서 영농지대별로 지출 비중이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농지대별로 항목별 지출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도시근교에 거주하는 농가가 보건의료비와 교제증여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보다 높은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비와 교제증여비의 경우는 평야지대에 거주하는 농가가 다른 농가보다 높은 지출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지대별로 항목별 지출 비중의 격차를 살펴보면 교양오락비와 피복신발비의 지출 비중이 지대별로 지출 격차가 가장 큰 반면, 식료품비와 교육비의 지출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농가 소비지출 분포의 불균등도 분석

이 장에서는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계산하고 불균등도를 지출 항목별로 나누어 어느 지출 항목이 소비지출 전체의 불균등 정도에 크게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불균등도를 가구유형별로 나누어 집단 간과 집단 내 불균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1. 불균등도 지수와 불균등도의 요인 분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분리 가능한 (decomposable) 엔트로피 불균등도 지표를 사용하였다. 지니계수는 불균등도 지수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가법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지출 항목별로 혹은 농가 유형별로 요인 분해할 경우 그다지 편리한 지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불균등의 요인분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표는 일반적인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이하 GE) 계열의 지표들이다.

GE 계열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I_c = \frac{1}{n} \frac{1}{c(c-1)} \sum_{i=1}^n \left[\left(\frac{x_i}{\mu} \right)^c - 1 \right], \quad c \neq 0, 1$$

$$(1) \quad I_0 = \frac{1}{n} \sum_{i=1}^n \log \left(\frac{\mu}{x_i} \right)$$

$$I_1 = \frac{1}{n} \sum_{i=1}^n \frac{x_i}{\mu} \log \left(\frac{x_i}{\mu} \right)$$

여기서 n 은 총가구수, μ 는 평균소비지출액, x_i 는 i 번째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나타낸다.

엔트로피 지수의 최소치는 0이며, 모든 소비지출이 동일하여 소비지출 분배가 가장 균등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며, 최대치는 ∞ 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소비지출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한편, 엔트로피 지수는 c 값이 작을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낮은 계층의 소비지출 변화에 민감하며, c 값이 클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계층의 소비지출 변화에 민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 지수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 값은 0, 1, 2이다. $c=0$ 이면 소비지출 수준이 낮은 계층의 소비지출 변화에 더욱 큰 가중치가 주어지는 것이고 $c=1$ 이면 모든 소비지출 분포에 고르게 가중치가 주어지는 경우이며, $c=2$ 이면 높은 소비지출 계층의 지출변화에 더 큰 가중치가 주어지는 것이 된다.

불균등 척도를 요인 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집단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불균등도를 요인 분해하는 방법(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이다. 예를 들면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가구주 연령별로 분해하거나, 혹은 영농 형태별, 영농지대별로 요인분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요인 분해할 경우 전체 불균등도는 집단 내 불균등도와 집단 간 불균등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는 소비지출 항목별로 요인분해하는 방법이 있다.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거주비, 교육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계잡비 등 항목별 지출의 불균등이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요인분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 소비지출 분포의 불균등도 변화 추이

지니계수와 엔트로피지수 I_1 과 I_2 를 사용하여 농가소득과 농가 소비지출, 그리고 비교를 위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불균등도를 계산하였다.

전반적으로 농가의 소비지출 불균등도가 소득 불균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소득의 경우 지니계수는 0.3564이고, 엔트로피 지수는 I_1 이 0.2117, I_2 가 0.2481인데 반하여 소비지출의 경우는 지니계수가 0.2963, I_1 과 I_2 은 각각 0.1462, 0.173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는 소득과 소비지출의 관련성에 대한 프리드만의 논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득의 일시적인 감소를 경험한 가구들이 많은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가구소득 중 임시소득(temporary income)이 증가한 가구들이 많다. 가구가 소득의 일시적인 증감과 무관하게 소비지출을 한다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 소득에 대한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경우는 소득에 대한 소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그 결과 소비지출의 변화는 소득의 변화 보다 완만하게 나

타나는 소비의 완만성(consumption smoothing)이라 이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소비지출과 소득간의 불균등도를 비교하여 보면 불균등도 지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지난 11년 동안 소득불균등도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농가소득의 불균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1995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1995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소득불균등도의 증가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와 비교하면 농가의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는 외환위기 이전인 95년에 비해 2000년에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0.3439에서 0.3493으로 약간 증가한데 반해, 농가는 0.2763에서 0.2963으로 그 불균등도가 현저히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의 충격이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농가의 소비지출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 농가소득과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변화 추이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가 소득	지니계수	0.3001	0.3377	0.3422	0.3425	0.3557	0.3672	0.3564
	I_1	0.1504	0.1993	0.1969	0.1952	0.2121	0.2281	0.2117
	I_2	0.1663	0.2608	0.2333	0.2242	0.2868	0.2677	0.2481
농가 소비 지출	지니계수	0.2775	0.2763	0.2854	0.2857	0.2881	0.2917	0.2963
	I_1	0.1348	0.1260	0.1335	0.1332	0.1388	0.1415	0.1462
	I_2	0.1858	0.1435	0.1512	0.1495	0.1647	0.1656	0.1733
도시 가계 소비 지출	지니계수	0.3610	0.3439	-	-	-	-	0.3493
	I_1	0.2737	0.2312	-	-	-	-	0.2246
	I_2	0.7447	0.4030	-	-	-	-	0.4642

3. 지출항목별 불균등도의 변화 추이

소비지출의 불균등 정도를 지출 항목별로 나누어 봄으로써 각 지출항목이 불균등한 정도와 지출항목별로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엔트로피지수는 I_2 이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사용된 엔트로피지수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

S_f 를 지출항목 x_f 가 전체소비지출 x 의 불균등도에 미치는 기여분이라 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계산된다.²

$$(2) \quad S_f = \rho_f \cdot n_f \sqrt{I_2 \cdot I_{2_f}}$$

단, ρ_f : 지출항목 x_f 와 전체지출 x 의 상관계수

n_f : 지출항목 x_f 의 전체지출 x 에 대한 비율 ($\equiv \frac{\mu_f}{\mu}$)

I_2 : 전체소비지출의 불균등도

I_{2_f} : 지출항목 x_f 의 불균등도

지출 항목별로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순위를 계산한 <표 4-2>의 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교제중여비, 기타잡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등의 순으로 불균등도가 높았다가, 1995년에는 기타잡비, 교육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등의 순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에는 기타잡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제중여비의 순서로 나타났다. 매년 교육비, 교양오락비, 기타잡비가 상위 4위 이내의 높은 불균등도를 보이

² 자세한 유도과정은 부록을 참조할 것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식료품비는 매년 낮은 불균등도를 보였다.

특기할 만 한 것은 교육비 지출이 농가 간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취학자녀를 두지 않아 교육비 지출이 적거나 전무한 노령가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식료품비, 피복신발비는 농가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들 비목에 대한 지출불균등도가 증가하여 왔다.

지출 항목별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순위를 계산한 <표 4-3>의 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기타잡비 등의 순으로 불균등도가 높았다가, 1995년에는 교통통신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보건위생비 등의 순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에는 기타잡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보건위생비의 순서로

표 4-2. 농가의 지출항목별 불균등도 순위

순위	1990		1995		2000	
	비목명	지수	비목명	지수	비목명	지수
1	교제증여	1.5045	기타잡비	1.3888	기타잡비	1.7032
2	기타잡비	1.3778	교육	1.0829	교육	1.4316
3	교육	0.9929	주거	0.9387	교양오락	0.7914
4	교양오락	0.9550	교양오락	0.7433	교제증여	0.7859
5	주거	0.7729	보건위생	0.6460	보건위생	0.7442
6	보건위생	0.7625	교제증여	0.5428	주거	0.6484
7	피복신발	0.2962	피복신발	0.3633	피복신발	0.4775
8	교통통신	0.2874	교통통신	0.3152	교통통신	0.3489
9	광열수도	0.1603	광열수도	0.1490	광열수도	0.1454
10	식료품	0.0612	식료품	0.0744	식료품	0.0818

나타났다. 매년 교통통신비와 주거비가 상위 4위 이내의 높은 불균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 식료품비는 매년 낮은 불균등도를 보였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음식물, 교양오락,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 불균등도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보건위생 및 주거에 대한 지출 불균등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지출 항목별 불균등도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근로자 가구가 농가에 비해 전체소비지출의 불균등도뿐만 아니라 지출항목별 불균등도도 높은 편이다. 둘째, 도시근로자 가구가 농가에 비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교통통신비, 주거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가가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소비지출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교육비, 교제증여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항목별 불균등도 순위

순위	1990		1995		2000	
	비목명	지수	비목명	지수	비목명	지수
1	교통통신	58.5440	교통통신	9.1583	기타잡비	9.4801
2	교양오락	6.5416	주거	5.1596	주거	7.6616
3	주거	4.1654	교양오락	5.1233	교통통신	5.0130
4	기타잡비	3.9416	보건위생	3.5819	보건위생	4.8416
5	교제증여	3.2538	기타잡비	3.3752	교양오락	4.3904
6	보건위생	3.0109	교제증여	2.5553	교제증여	4.2573
7	교육	2.2637	교육	2.1957	교육	2.9540
8	피복신발	1.4705	피복신발	1.3511	피복신발	1.6046
9	광열수도	0.4378	광열수도	0.3071	광열수도	0.3220
10	식료품	0.2022	식료품	0.1893	식료품	0.1399

다음으로 각 지출항목이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정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하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농가의 경우 1990년에는 교제증여비, 기타잡비, 교육비의 순서로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대한 기여율이 높았고, 1995년에는 기타잡비, 교제증여비, 교육비의 순서이었으며, 2000년에는 교제증여비, 기타잡비, 교육비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매년 교제증여비, 교육비, 기타잡비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 교양오락비의 불균등도 기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비, 광열수도비, 주거비, 교통통신비의 불균등 기여도도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통신비의 불균등 기여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990년에는 교통통신비, 교제증여비, 식료품비의 순서이었

표 4-4.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대한 지출항목별 기여도

순위	1990		1995		2000	
	비목명	기여율	비목명	기여율	비목명	기여율
1	교제증여	48.80	기타잡비	32.52	교제증여	34.76
2	기타잡비	23.92	교제증여	28.32	기타잡비	23.06
3	교육	7.40	교육	11.37	교육	11.16
4	식료품	5.56	식료품	7.93	식료품	9.13
5	주거	4.38	주거	5.40	교통통신	6.23
6	보건위생	3.70	보건위생	4.77	주거	5.81
7	교통통신	2.54	교통통신	4.10	보건위생	4.77
8	피복신발	2.40	피복신발	3.53	피복신발	2.46
9	광열수도	0.82	광열수도	1.24	광열수도	1.88
10	교양오락	0.47	교양오락	0.81	교양오락	0.73

으나 1995년에는 교통통신비, 교제증여비, 주거비의 순서이었으며, 2000년에는 교통통신비, 교제증여비, 기타잡비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매년 교통통신비와 교제증여비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매년 보건위생비와 광열수도비의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를 비교하여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인 경우 교통통신비와 주거비, 교양오락비 등의 불균등도 기여율이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가는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교육비와 교제증여비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대한 지출항목별 기여도

순위	1990		1995		2000	
	비목명	기여율	비목명	기여율	비목명	기여율
1	교통통신	50.13	교통통신	25.20	교통통신	26.52
2	교제증여	11.50	교제증여	18.84	교제증여	21.30
3	식료품	11.24	주거	11.92	기타잡비	13.74
4	주거	8.09	기타잡비	11.56	교육	9.60
5	기타잡비	7.95	식료품	9.31	주거	9.59
6	피복신발	4.47	피복신발	6.40	식료품	7.44
7	교양오락	3.28	교육	5.85	교양오락	4.26
8	교육	3.17	교양오락	5.59	피복신발	4.16
9	보건위생	1.67	보건위생	2.59	보건위생	2.43
10	광열수도	0.81	광열수도	0.80	광열수도	0.97

4. 가구 유형별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변화 추이

4.1.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소비지출의 불균등 정도를 가구주 연령 계층별로 분해하여 소비지출의 불균등 격차를 비교하였다. 가구주 연령 계층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내의 불균등도와 집단 간 불균등도를 분석하였다<표 4-6>.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결과에 대한 주요한 특

표 4-6.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전체 불균등도	집단k의 인구비중	집단 내 불균등도	집단 간 불균등도	집단별 연평균 소비지출 (천원)
농가	30세 미만		0.0030	0.0886	-0.1284	15,682
	30-39세		0.0526	0.1529	0.0535	19,142
	40-49세		0.1951	0.1000	0.1480	20,711
	50-59세		0.2865	0.1545	0.1918	21,398
	60세 이상		0.4628	0.2030	-0.1576	15,054
	전체	0.1733		0.1599	0.0133	18,192
도시 근로자 가구	30세 미만		0.0842	0.0184	-0.0176	17,040
	30-39세		0.3173	0.0812	-0.0173	21,084
	40-49세		0.3058	0.1170	0.0344	24,732
	50-59세		0.1773	0.1868	0.0377	26,664
	60세 이상		0.1153	0.0478	-0.0242	17,028
	전체	0.4642		0.4512	0.0130	22,344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 모두 집단 내 불균등도가 집단 간 불균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집단 내 불균등이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 내 불균등도가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전체에 기여하는 비율은 도시근로자 가구가 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우 집단 내 불균등도의 기여도는 92.3%인데 반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97.2%에 달하였다.

셋째,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불균등도가 가장 높은 반면, 30세 미만인 가구에서 불균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에서 불균등도가 가장 높은 반면, 30세 미만인 가구에서 불균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를 비교할 때 50대 계층을 제외하면 모든 세대에서 농가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집단 내 불균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경지규모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농가를 경지규모별로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으로 분해하여 소비지출의 집단 간 불균등도와 집단 내 불균등도를 구하였다<표 4-7>.

소비지출의 경지규모별 불균등도 분해에서 발견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내 불균등도가 집단 간 불균등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집단 내 불균등이 전체 불균등도의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 집단 내 불균등도가 전체 불균등도에 기여한

부분은 94.2%인 반면, 집단 간 불균등도의 기여율은 5.8%이다.

둘째, 경지규모별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비교하여 보면 경지규모가 0.5~1.0ha인 농가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높은 반면, 2.0ha 이상인 농가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경지규모별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경지규모가 0.5ha 미만, 0.5~1.0ha, 2.0ha 이상인 농가계층에서는 집단 내 불균등도가 1995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지규모가 1.5~2.0ha 인 농가에서는 1995년 이후 불균등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지규모가 1.0~1.5ha인 농가계층에서는 불균등도가 1995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7. 경지규모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전체 불균등도	집단k의 인구비중	집단 내 불균등도	집단 간 불균등도	집단별 연평균 소비지출 (천원)
1995년	0.5ha 미만		0.2044	0.1719	-0.1318	13,770
	0.5-1.0ha		0.2581	0.1461	-0.1918	13,286
	1.0-1.5ha		0.2061	0.1395	-0.0012	14,770
	1.5-2.0ha		0.1302	0.1419	0.1533	15,870
	2.0ha 이상		0.2012	0.1051	0.3264	17,020
	전체	0.1435		0.1391	0.0045	14,778
2000년	0.5ha 미만		0.1964	0.2034	-0.2761	15,479
	0.5-1.0ha		0.2477	0.2284	-0.1972	16,300
	1.0-1.5ha		0.1990	0.1399	0.0180	17,453
	1.5-2.0ha		0.1303	0.1284	0.1864	19,816
	2.0ha 이상		0.2266	0.1271	0.5063	22,328
	전체	0.1733		0.1632	0.0101	18,192

셋째, 경지규모별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5~2.0ha와 2.0ha 이상인 농가사이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5-2000년 평균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를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1995년 이후 모든 계층에서 평균 소비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경지규모가 2.0ha 이상인 농가 계층에서 소비지출액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1995년 이후 집단 내 불균등도가 거의 모든 계층에 대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간 불균등도가 전체 불균등도에 기여하는 비중도 1995년 이후 늘어났다.

4.3. 영농형태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농가를 영농 형태별로 수도작농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로 분해하여 집단 간 불균등도와 집단 내 불균등도를 구하였다<표 4-8>.

소비지출의 영농 형태별 분해결과에 대한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내의 불균등도가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 내 불균등도 기여도가 97.1%나 되는 반면, 집단 간의 불균등도가 전체에 기여한 부분은 2.9%에 불과하다.

둘째, 영농 형태별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비교하면 1995년의 경우 화훼농가계층에서 가장 높고, 축산농가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000년의 경우는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수도작농가 계층에서 가장 높고 채소농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95년 농산물 개방 이후 특정 작물로의 생산집중과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영농 형태별 소득의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지출의 분포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영농 형태별로 연평균 소비지출액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1995년에는 축산농가가 17,726천원으로 가장 높고 과수농가가 12,188천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5년 이후 소비지출규모가 늘어났는데 과수농가와 화훼농가의 소비지출액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1995년 이후 채소, 특작 및 화훼농가를 제외하고 소비지출의

표 4-8. 영농 형태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전체 불균등도	집단k의 인구비중	집단 내 불균등도	집단 간 불균등도	집단별 연평균 소비지출 (천원)
1995년	수도작농가		0.6488	0.1458	-0.0120	14,703
	과수농가		0.0537	0.1390	-0.3198	12,188
	채소농가		0.0778	0.1331	0.2328	16,409
	특작농가		0.0771	0.1489	-0.0400	14,480
	화훼농가		0.0417	0.1563	-0.0489	14,412
	전작농가		0.0485	0.1142	0.2375	16,440
	축산농가		0.0221	0.0815	0.4387	17,726
	기타농가		0.0303	0.1277	-0.1958	13,253
	전체	0.1435		0.1412	0.0022	14,778
2000년	수도작농가		0.3832	0.1982	-0.1793	16,480
	과수농가		0.0921	0.1510	0.0731	18,845
	채소농가		0.1487	0.1320	-0.1091	17,171
	특작농가		0.0342	0.1406	0.0015	18,206
	화훼농가		0.0141	0.1038	0.2193	20,088
	전작농가		0.0132	0.1425	-0.2682	15,562
	축산농가		0.0487	0.1362	0.1152	19,211
	기타농가		0.2658	0.1663	0.3130	20,846
	전체	0.1733		0.1682	0.0051	18,192

불균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농가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1995년도에 비해 2000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1995년 이후 집단 간 불균등도가 전체 불균등도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 내 불균등도가 전체 불균등도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995년에는 집단 간 불균등도가 전체 불균등도의 1.53%를 설명하였으나 2000년에는 2.94%로 늘어났다. 그러나 집단 내 불균등도가 절대적이다.

4.4. 영농지대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농가를 영농지대별로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지역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불균등도와 집단 내의 불균등도를 구하였다<표 4-9>.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영농지대별 분해 결과에서 발견된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내의 불균등도가 전체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집단 내 불균등도 기여도가 99.6%나 되는 반면, 집단 간 불균등도가 전체 불균등도에 기여한 부분은 0.4%에 불과하다.

둘째, 영농지대별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비교하여 보면 1995년의 경우 중간지역에서 가장 높고, 도시근교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0년의 경우는 도시근교지역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높고, 산간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1995년 이후 집단 내 불균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근교 농가의 집단 내 불균등도가 1995년도에 비해 2000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9. 영농지대별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해

		전체 불균등도	집단k의 인구비중	집단 내 불균등도	집단 간 불균등도	집단별 월평균 소비지출 (천원)
1995년	도시근교		0.1563	0.1191	0.2239	16,349
	평야		0.2660	0.1324	0.1013	15,509
	중간		0.3571	0.1612	-0.0139	14,675
	산간		0.2207	0.1317	-0.2318	12,952
	전체	0.1435		0.1406	0.0029	14,778
2000년	도시근교		0.1072	0.2129	0.0889	19,744
	평야		0.2586	0.1832	0.0161	18,483
	중간		0.4786	0.1621	-0.0124	17,966
	산간		0.1556	0.1499	-0.0459	17,336
	전체	0.1733		0.1726	0.0006	18,192

제 5 장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이 장에서는 농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소비함수모형을 추정하였다. 농가 소비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산상태, 사회·인구적인 특성, 농가 유형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또한 대상농가 및 지출유형을 구분하여 소비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1. 분석 모형

농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비지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가설들을 대상으로 소비함수모형을 추정하였다.

농가 소비는 소득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제2장에서 검증되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소득 수준이 농가 소비 수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농가소비는 소득 변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만 반응하며 습관이나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은 농가가 습관 또는 새로운 정보 부족 등으로 소득 변동 시 부분적으로만 소비를 조절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소득변수와 함께 전기 소비(C_{t-1})가 습관이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다.³

$$(1) C_t = a_0 + a_1 Y_t + a_2 C_{t-1} + e_t$$

Y_t : 소득 관련변수

두 번째 모형은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로 항상소비는 항상소득(PI)의 함수로 가정된다.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늘어났다고 판단되는 소득 부분은 소비하나 일시적 증가분은 대부분 저축하게 된다. 프리드만은 항상소득 추정을 위해 당기와 과거 소득의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분석에서는 2개년 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과 당해 연도 소득의 평균값을 항상소득 추정값으로 이용하였다.⁴

³ 습관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다른 모형으로 Dusenberry가 제안한 상대소득가설(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이 있으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자료의 성격상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모형설정에서 제외하였다. 상대소득가설은 사람들이 일정 삶의 수준에 익숙해져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한다.

$$C_t = a_0' + a_1' Y_0 + a_2' (Y_t - Y_0) + e_t$$

Y_0 : 실질가처분소득 최고수준

⁴ Langemeier & Patrick(1990)는 시계열자료를 이용시 항상소득 추정치로 $1/2 Y_t + 1/3 Y_{t-1} + 1/6 Y_{t-2}$ 를 적용하였다.

$$(2) C_t = b_0 + b_1PI + b_2C_{t-1} + e_t$$

세 번째 모형은 안도와 모딜리아니(Ando & Modigliani)에 의해 발전된 생애소득 가설(life cycle hypothesis)이다. 이 모형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현재와 미래소비의 함수로 농가는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현재의 순자산의 제약하에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⁵

$$(3) C_t = c_0 + c_1Y_t + c_2C_{t-1} + c_3NW_t + e_t$$

NW_t : 실질순자산변동 관련변수

네 번째는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s)모형으로 농가 중에서 일부는 원하는 시점에서 자유롭게 차입할 수 없는 유동성 제약하에 있어 소비의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가정한다. 즉, 농가 중 일부는 자유로운 차입조건 하에서 생애에 걸친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소비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 일부 농가는 유동성 제약하에 있어 가처분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고도 적정소비수준에 도달되지 못하게 된다. 유동성제약 여부에 따라 농가를 유동성 제약이 없는 그룹과 유동성제약 그룹으로 구분할 경우 농가전체에 대한 소비함수는 비선형 제약하에 식(4)와 같이 도출된다. 이 식에서 유동성 제약하에 있어 생애소득가설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농가의 비중은 λ 가 된다.⁶

⁵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모형에 대한 설명은 Langemeier, Patrick(1990, 309-310)와 Mullen, Powell, Reece(1980, 272-274)를 참조하였다.

⁶ 유동성제약이 없는 그룹의 소비는 $C_{1t} = (d_0 + d_1 C_{1t-1} + e_t)$,

유동성제약그룹의 소비는 $C_{2t} = y_{2t}$
 $= \lambda y_t$

(y_{2t} : 유동성 제약그룹의 가치분소득, y_t : 두그룹의 가치분 소득)
이므로 $C_t = C_{1t} + C_{2t}$ 에 대입하면 <식 4>와 같이 도출된다.
자세한 도출과정은 Langemeier and Patrick(1993)의 pp479~480을 참고.

$$(4) C_t = d_0 + d_1 C_{t-1} + \lambda y_t - d_1 \lambda y_{t-1} + e_t$$

이상의 네가지 소비함수모형을 기초로 하여 농가소비함수를 추정하였으며, 가구의 사회·인구 특성과 농가 유형 등도 농가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변수들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생애소득 가설모형 추정 시에는 자산형태에 따른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순자산규모를 변수로 포함한 함수와 자산 및 부채 유형을 세부 구분한 함수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2.1. 이용자료

농가소비함수 추정을 위해서 통계청의 2000년, 1999년 농가경제조사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표본은 2000년 횡단면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년도 소비지출액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 2개년 연속 조사된 2,940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 1개월 단위로 조사되는 일계부 조사와 연간 2회 실시되는 원부 조사로 진행되며, 일계부는 농가 기본항목·수지사항·작업 현황을 포함하고 원부는 농가자산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일계부에서 농가의 가구 현황 및 수입·지출현황과 원부에서 자산 및 부채 현황 관련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추정방법

소비함수모형은 통상최소자승법(OLS)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유동성제약 가정하의 모형 추정 시는 OLS와 비선형 제약하의 2SLS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2SLS 추정시 가처분소득의 도구변수는 전기 소비, 전기 소득, 전기 순자산, 전기 경지면적, 전기 소유면적이 다.

총소비함수 이외에 특정 농가그룹별, 지출항목별 소비 행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상 농가 및 지출 항목을 구분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특정 농가그룹은 가구주 연령과 농가잉여를 기준으로 노령농가와 비노령농가, 농가잉여 적자가구와 농가잉여 흑자가구로 분류하였다.

농촌지역에서 노령농가 비중이 매우 높아 도시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노령농가의 경우 현재 및 미래소득에 대한 평가에 있어 비노령농가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가구주 연령 60세를 기준으로 노령농가와 비노령농가를 구분하여 소비함수를 분석하였다.

농가잉여 적자 여부는 가계비가 가처분소득(농가소득-조세공과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가 또는 부족한가에 따라서 구분된다. 농가잉여의 적자 여부는 농가 부채의 단기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농가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이용된다. 즉, 최근 농가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가 농가의 경영기반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부채상환 능력이 있다면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소비지출 항목은 지출형태에 따라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로 구분하고, 지출목적에 기준으로 필수재, 선택재로 구분하였다.⁷ 농가의 소비 행태가 지출항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므로 항목별

⁷ 항목별 구분은 제2장 pp. 15-17 참고 바람.

소비함수 분석결과는 구체적인 소비 행태 해석과 향후 항목별 소비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분석 변수

소비함수의 종속변수는 농가단위의 가계비 지출액이며, 지출항목별 소비행태 분석 시는 항목별 지출액이다.

소득 관련 변수로는 농가소득에서 조세공과금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농가자산은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으로 구분되며,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은 농가의 특성상 농업용 및 가계용 등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고정자산은 농업생산에 투입된 자산의 가치가 장기간 제공되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대동·식물, 대농기구가 포함된다. 유동자산은 처분이 용이하고 유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재고농산물, 재고생산자재, 소동물이 해당된다. 유통자산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현금, 예금, 대부금, 보험금, 유가증권, 계(契), 미수금이 포함된다.

농가부채는 각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등이 포함되며, 차입용도에 따라서 생산성 자금, 가계성 자금, 채무상환용으로 구분된다. 생산성 자금은 생산시설 투자(토지, 건물, 영농시설물 등) 및 농업경영 자금(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가축구입비 등), 농업이외의 사업운영을 위한 시설자금이 포함된다. 가계성 자금은 가계운영을 위해 차입한 자금이며, 채무상환용은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농가의 자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유형별 자산·부채와 순자산(자산-부채)이 모형에 투입되었다. 유형별 자산변수는 고정자

산·유통자산·금융자산이며, 부채변수는 생산성부채와 가계성부채로 구분하였다. 채무상환용 부채는 가계성부채에 포함시켰다. 또한 농가의 경우 토지가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생산투자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 비율(자작지/경작지)을 별도의 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가구의 사회·인구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학력, 가구원수가 변수로 투입되었다. 가구주 성별은 여성 가구주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남성 가구주 가구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가구주 학력은 초등학교 학력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학력이 높아질수록 1부터 6까지 증가하는 변수로 설정되었다.

농가 유형변수로 영농형태에 따라서 수도작 농가와 2종 겸업지구 에 위치한 가구에 대해 더미변수가 투입되었으며, 지대구분에 따라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지역 거주 가구에 대해 각각 더미변수가 설정되었다.

투입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1>과 같다.

표 5-1.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가계비	18,255,509.5	10,683,807.2
전기가계비	17,409,906.2	9,962,366.6
가처분소득	22,099,841.4	15,478,428.0
가구원수	3.19	1.40
남성가구주	0.94	0.23
가구주학력	1.71	1.06
가구주연령	57.06	10.56
도시근교	0.104	0.31
산간	0.157	0.36
평야	0.260	0.44
중간	0.480	0.50
수도작농가	0.386	0.49
겸업가구	0.260	0.44
순자산	163,960,390	158,212,421
장기부채	31,952,321	60,484,339
단기부채	12,101,766	23,962,267
고정자산	127,547,163	139,958,274
유동자산	5,021,193	6,210,859
금융자산	53,419.178	57,020,253
자작지비율	0.641	0.331

4. 분석 결과

4.1. 농가소비함수

농가소비함수 추정식은 1절에서 설명한 4가지 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변수 및 추정방식에 따라 모두 6가지 형태로 추정하였다.

표 5-2. 농가소비함수 추정식

	분석변수				추정방식
	소득	전기소비	자산	가구유형	
부분조정모형	당기소득	○	×	○	OLS
항상소득가설모형	항상소득	○	×	○	OLS
생애소득가설1	당기소득	○	순자산	○	OLS
생애소득가설2	당기소득	○	자산유형별	○	OLS
유동성제약가정1	당기소득	○	순자산	○	OLS
유동성제약가정2	당기소득	○	순자산	×	2SLS

소득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당기 가처분소득이 1단위 증가하면 소비지출은 0.22~0.26 증가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은 0.22~0.26으로 추정되었다.

전기 가계비 지출변수 또한 가계비 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소비습관이 소비지출에 상당 영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생애소득 가설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는 당기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항상소득 가설모형에서 항상소득변수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자산 증가는 소비지출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산 형태별로는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높아 소비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동자산은 단기소비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가계성 부채와 생산성부채 모두 단기소비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중에서 특히 가계성 자금용도로 차입되는 가계성 부채가 소비 증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생산시설투자와 농업경영자금 등으로 차입되는 생산성 부채도 자산 증가를 통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사회·인구적 성격을 반영하는 가계특성변수의 경우 대부분 가구의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가 1인 증가하면 가구의 소비지출은 연간 33~5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4~6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령화될수록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생애소득 가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학력도 가구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 학력 수준은 소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상위 소비 수준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주의 성별은 가구의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유형변수로 투입된 농가의 지대구분 변수는 농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겸업농가의 경우 다른 농가에 비해 가계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겸업가구의 경우 농가 소비지출은 다른 농가에 비해 약 12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중에서 일부가 유동성제약 상황에 처해 있다는 가정 하에 소비함수를 추정할 결과 가처분소득(y_d)의 모수로 추정되는 유동성제약농가의 비중이 22~24%로 추정되었으며, 이 비중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농가의 22~24%는 유동성 제약에 직면함으로써 항상소득 가설로부터 도출되는 소비최적화를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표 5-3. 소비함수 추정결과

	부분조정 모형	항상소득 가설모형	생애소득 가설모형1	생애소득 가설모형2	유동성 제약 가정모형1	유동성 제약 가정모형2
상수	5,442,033 (3.69)	5,976,988 (3.96)	6,581,931 (4.45)	5,137,159 (3.48)	6,400,022 (4.31)	5,659,144 (13.16)
가처분소득	0.256993 (23.49)		0.238996 (21.24)	0.251029 (22.05)	0.220591 (19.54)	0.239465 (9.45)
전기 가계 비 지출	0.325198 (19.02)	0.286220 (15.35)	0.301118 (17.27)	0.265537 (15.22)	0.273555 (15.64)	0.324812 (14.89)
전기 가 처 분 소득					-0.060344	-0.077781
순자산			0.006809 (6.18)		0.006253 (5.65)	
생산성부채				0.012241 (2.25)		
가계성부채 등				0.126593 (8.34)		
고정자산				0.009558 (7.53)		
유동자산				-0.043193 (-1.62)		
금융자산				0.004090 (1.47)		
자작지비율				148,940 (0.31)		
항상소득		0.271009 (19.93)				
가구원수	505,029 (4.04)	548,356 (4.28)	443,052 (3.55)	333,106 (2.68)	424,173 (3.39)	
남성가구주	542,852 (0.79)	569,187 (0.81)	482,455 (0.71)	526,044 (0.78)	497,313 (0.73)	
가구주학력	787,328 (4.67)	767,939 (4.45)	644,983 (3.81)	488,800 (2.91)	637,125 (3.75)	
가구주연령	-46,004 (-2.59)	-49,347 (-2.71)	-62,399 (-3.49)	-43,340 (-2.41)	-60,823 (-3.39)	
근교	482,937 (0.91)	483,036 (0.89)	-49,651 (-0.09)	-154,332 (-0.29)	51,380 (0.10)	
평야	361,317 (0.97)	380,195 (0.99)	378,911 (1.02)	311,313 (0.85)	364,837 (0.98)	
산간	159,332 (0.35)	145,985 (0.32)	321,963 (0.72)	420,004 (0.96)	318,229 (0.71)	
수도작농가	349,559 (0.96)	150,468 (0.41)	384,986 (1.07)	733,843 (2.05)	337,368 (0.93)	
겸업가구	1,246,158 (3.06)	1,220,676 (2.93)	1,268,804 (3.14)	1,709,687 (4.18)	1,211,618 (2.99)	
adj R ²	0.3997	0.3718	0.4072	0.4306	0.4032	0.3762

4.2. 농가그룹별 소비 행태 비교

4.2.1. 노령농가

농촌지역은 주로 젊은 층의 이농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노령농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령농가의 경제·사회·인구적 특성이 농촌지역의 소비지출 행태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노령농가를 구분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비노령농가와 비교함으로써 농가정책의 중요한 대상그룹인 노령가구의 소비행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령가구와 60세 미만인 비노령가구로 구분하였으며, 함수형태는 자산변수로 순자산을 포함한 <생애소득 가설모형 1>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령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은 0.31로 비노령농가의 0.1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반면, 순자산 증가에 대한 지출 증가율은 반대로 비노령농가가 노령농가에 비해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농가는 비노령농가에 비해 미래소비보다 당기소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기가처분 소득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액 증가분은 노령가구가 78만원인 반면 비노령가구는 41만원으로 노령가구가 비노령가구에 비해 크게 높다. 이는 가구원이 대부분 50대 이하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범위에 속해 있으며 연령구성상 노령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즉, 노령가구에 속한 30대 가구원의 소비지출은 비노령가구의 10대 가구원의 소비지출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주 학력은 노령가구에 비해 비노령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구주 성별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비노령

가구에서 가구주 학력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의 기대심리나 정보의 접근성이 노령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에 대해서는 노령가구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20~60세까지는 대체로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였으나, 연령대를 구분할 경우 생애소득 가설의 소비지출 증가범위에서는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비지출 감소범위 하에 있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범위에서는 음(-)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가의 지대구분 등에 따른 영향은 노령농가와 비노령농가 모두에서 유의적이지 않았으며, 겸업가구는 두 그룹 모두에서 다른 가구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2. 농가잉여 적자가구

농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소비함수 추정결과에 의하면 농가 소비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는 일생동안 이용 가능한 자원에 의존하여 소비를 최적화한다는 생애소득 가설이 입증된다. 그러나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농가가 소비의 최적화를 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농가 중의 22~24%는 유동성 제약하에 처해 있어 그렇지 않은 농가와 다른 소비행태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실증분석에서 유동성 제약농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① 금융자산과 소득 비교, ② 총 자산과 소득 비교, ③ 소비와 소득·자산 비교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Zeldes 1989; Hayashi 1985). 이 분석에서는 농가의 소비와 소득 수준을 감안한 농가잉여 적자가구를 유동성 제약농가의 표

본으로 설정하였다.⁸ 농가잉여 적자 여부는 가계비가 가처분소득(농가소득-조세공과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또한 농가 부채의 단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농가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농가잉여 적자가구의 소비함수 추정 결과 농가잉여 적자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 증가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잉여 적자가구의 경우 잠재소비수준이 소득제약하의 현재 소비보다 크므로 소득 및 자산이 증가할 때 소비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원수 증가나 가구주의 학력은 농가잉여가 흑자인 농가의 경우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나, 농가잉여가 적자인 가구는 소비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 때 소비지출 감소 폭은 농가잉여 적자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농가잉여 흑자가구 중에서는 수도작 농가의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농가잉여 적자가구는 수도작 농가가 오히려 소비지출이 적은 현상을 보였다. 즉, 농가잉여의 적자 여부에 따른 벼농사 가구의 소비지출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겸업가구는 농가잉여 흑자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크게 많으나, 농가잉여 적자가구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⁸ 이 분석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동성 제약농가의 소비함수를 분석해 보았으나 대부분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유의성이나 영향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농가 그룹별 소비함수 추정결과

	노령농가		농가잉여 적자가구	
	가구주60세 이상가구 (1,347가구)	가구주60세 미만가구 (1,593가구)	소비 ≥ 가처분소득 (1,015가구)	소비 < 가처분소득 (1,925가구)
상수	7,307,447 (2.40)	-1,934,184 (-0.77)	11,122,068 (3.88)	2,081,131 (1.76)
가처분소득	0.314893 (19.05)	0.186030 (12.21)	0.589413 (21.48)	0.340266 (35.10)
전기가계비지출	0.180436 (7.70)	0.351280 (13.92)	0.205325 (6.20)	0.189929 (13.12)
순자산	0.004260 (2.98)	0.008109 (5.07)	0.016894 (8.08)	0.001801 (2.03)
가구원수	776,425 (4.40)	413,924 (2.27)	281,738 (1.13)	404,242 (4.11)
남성가구주	372,743 (0.42)	715,359 (0.72)	1,918,916 (1.46)	184,262 (0.34)
가구주학력	606,780 (2.91)	916,431 (3.52)	152,710 (0.48)	447,288 (3.26)
가구주연령	-82,854 (-1.99)	109,241 (2.81)	-123,202 (-3.57)	-19,345 (-1.35)
근교	-93,335 (-0.14)	69,313 (0.09)	-1,035,867 (-1.09)	12,091 (0.03)
평야	130,152 (0.28)	677,451 (1.22)	562,531 (0.81)	25,400 (0.08)
산간	640,551 (1.10)	265,363 (0.41)	601,338 (0.71)	316,682 (0.88)
수도작농가	737,884 (1.65)	244,207 (0.45)	-1,150,614 (-1.76)	773,251 (2.57)
겸업가구	1,099,650 (1.89)	1,105,010 (2.00)	878,703 (1.09)	2,123,999 (6.55)
adj R ²	0.4527	0.3293	0.5215	0.6286

4.3. 지출 항목별 소비 행태 비교

소비지출 항목은 지출 형태에 따라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로 구분하고, 지출 목적을 기준으로 필수재, 선택재로 구분하여 소비함수를 추정된 결과 지출항목별로 소비 행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지출 형태별로는 서비스(0.20) > 비내구재(0.023) > 내구재(0.017)의 순서이며, 지출 목적별로는 선택재(0.200) > 필수재(0.043)이었다. 순자산의 증가도 지출 형태별로는 서비스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필수재보다 선택재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이나 자산의 변동에 크게 영향 받는 항목은 지출 형태별로는 서비스, 지출목적별 구분으로는 선택재이며, 이들 항목의 경우 향후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소비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조건의 가구에서 가구원 수가 1인 증가하면 비내구재 지출이 가구당 40만원 정도, 내구재 지출은 20만원 정도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 지출 증가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목적별로는 선택재 지출은 43만원 감소하고 필수재 지출이 8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은 목적별 구분시 필수재에 비해 선택재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형태별로는 고학력 가구일수록 서비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학력 가구일수록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 등의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감소하는 지출 형태는 서비스(-29,558원), 내구재(-18,974원), 비내구재(-13,866원) 순서이며, 목적별로는 선택재(-49,212원)의 지출이 필수재(-13,187원)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대별로는 근교지역 농가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내구재 지출이 16만원 정도 많고 비내구재 지출이 37만원 적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근교지역 농가의 경우 도시지역 문화생활의 영향을 가장 많아 주거비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겸업가구는 다른 영농 형태의 가구에 비해 특히 서비스 형태의 지출이 106만원 정도 많으며 지출 목적별로는 필수재 55만원, 선택재 72만원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 지출 형태별 소비함수 추정결과

	내구재계	비내구재	서비스	필수재	선택재
상수	510,170 (2.32)	2,742,151 (7.04)	3,329,610 (2.48)	2,466,404 (5.16)	4,115,527 (3.06)
가치분소득	0.016623 (9.94)	0.022530 (7.61)	0.199843 (19.56)	0.042604 (11.72)	0.196392 (19.21)
전기가계비지출	0.025844 (9.97)	0.051101 (11.13)	0.224173 (14.16)	0.082806 (14.70)	0.218312 (13.78)
순자산	0.000121 (0.74)	0.001082 (3.73)	0.005606 (5.60)	0.002318 (6.51)	0.004491 (4.48)
가구원수	195,920 (10.57)	404,110 (12.31)	-156,978 (-1.39)	874,454 (21.70)	-431,402 (-3.81)
남성 가구주	28,029 (0.28)	407,576 (2.27)	46,850 (0.08)	-6,443 (-0.03)	488,898 (0.79)
가구주 학력	84,105 (3.34)	-19,971 (-0.45)	580,849 (3.78)	169,367 (3.10)	475,616 (3.09)
가구주 연령	-13,866 (-5.22)	-18,974 (-4.03)	-29,558 (-1.82)	-13,187 (-2.28)	-49,212 (-3.03)
근교	155,985 (1.97)	-370,798 (-2.64)	165,162 (0.34)	108,363 (0.63)	-158,014 (-0.33)
평야	23,785 (0.43)	-150,679 (-1.54)	505,805 (1.50)	-95,033 (-0.79)	473,944 (1.40)
산간	-50,309 (-0.76)	199,101 (1.69)	173,171 (0.43)	-106,815 (-0.74)	428,779 (1.05)
벼농사가구	1,388 (0.03)	39,914 (0.42)	343,683 (1.05)	-17,516 (-0.15)	402,502 (1.23)
겸업가구	141,394 (2.35)	70,918 (0.67)	1,056,492 (2.88)	550,001 (4.21)	718,803 (1.96)
adj R-square	0.2466	0.2300	0.3232	0.4309	0.2977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농가 소비지출의 특징

1996~2000년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76.9%로 도시근로자 가구(72.4%), 일본 농가(78.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농가소비율의 변동 폭이 커서 불안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나 일본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에 기인한다.

1991~2000년간 항목별 농가 소비지출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농가 소비지출규모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식료품비의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비중은 23.5%였으나 2000년에는 23.5%로 낮아졌고 주거비, 피복비도 각각 7.8%, 4.6%에서 6.8%, 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왔다.

교통통신비의 증가는 농촌에 도시형 문화의 도입과 더불어 핸드폰 보급, 컴퓨터 통신 관련 비용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농가에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고 휴대전화 보유 및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통신비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보건의료비

의 증가는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노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의료비는 매년 일정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비교하면 농가는 보건의료비와 교제증여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는 식료품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농가보다 높다. 일본 농가의 소비지출구조와 비교하면 한국 농가는 교육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 농가는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등 문화생활 관련 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 소비지출을 목적별로 분류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필수재에 대한 지출보다 선택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소비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농촌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반영한다.

농가 소비지출을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재 등 형태별로 구분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비내구재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농촌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농촌 지역에 가사 관련 서비스업의 확대, 도시형 문화의 도입, 정보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준이상 수요체계모형을 가지고 농가의 가계비 지출수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격탄력적인 소비지출 항목은 광열수도비, 교육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탄력적인 소비지출항목은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세대별 소비지출의 구조를 살펴보면 농가 소비지출 규모는 가구주의 연령과 함께 확대되고 있지만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정점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별 소비지출의 변화는 세대별 소득변화와 유사하지만 세대별 소득격

차보다 세대별 소비지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대주 연령 계층별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부양 부담이 가장 큰 40대 후반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계층에서는 특히 교육비, 피복신발비, 주거비,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소득 규모별로 농가소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농형태별로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비지출 규모가 가장 큰 농가 유형은 화훼농가이었으며 다른 유형의 농가에 비해 식료품, 교육, 교양오락 및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출규모가 가장 낮은 농가 유형은 밭농사 가구로 다른 유형의 농가에 비해 특히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지대별로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도시근교지역 농가의 지출규모가 가장 높고, 산간지역 농가의 지출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교지역 농가는 보건의료비와 교제증여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에서 다른 농가 더욱 높은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비와 교제증여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평야지대에 거주하는 농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평가

농가 소비지출과 농가소득의 불균등 정도를 계산한 결과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농가소득의 불균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가간 소비지출의 격차가 소득격차보다 아주 적음을 반영하고 있다.

1990~2000년 불균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의 불균등도는 커진 반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지출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매년 교육비, 교양오락비, 기타잡비가 상위 4위 내의 높은 불균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매년 가장 낮은 지출 불균등도를 보인 지출항목은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식료품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교육 관련 지출은 지출 규모가 농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간 지출규모의 차이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출항목별 불균등도를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교통통신, 주거에 대한 지출의 불균등도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가 농가보다 높고, 교육, 교제증여에 대한 지출 불균등도에서는 농가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지출 항목의 전체 소비지출 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농가의 경우는 교제증여비, 교육비, 기타잡비의 기여율이 가장 높고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 교양오락비의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교통통신비와 교제증여비의 불균등도 기여율이 가장 높고 보건위생비와 광열수도비의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지출의 불균등 정도를 세대별로 분해하여 보면 농가의 경우 가구주가 60대인 가구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높고 30세 미만 가구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가구주가 30대 미만인 가구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 정도를 경지 규모별로 분해하여 보면 경지규모가 0.5~1.0ha인 농가에서 불균등도가 가장 높고 경지 규모가 2.0ha 이상인 농가에서 불균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지 규모별 집단 내 불균등도와 집단 간 불균등도를 비교하여 보면 집단 내 불균등도가 집단 간 불균등도보다 높아 전체 불균등도의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 정도를 영농 형태별로 분해하여 보면 1995년에는 화훼농가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높고, 축산농가에서 불균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에는 수도작농가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높고, 채소농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특정 작물로의 생산집중과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영농 형태별 소득분포가 달라짐에 따라 소비지출의 분포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수도작, 과수, 전작, 축산농가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축산농가계층에서 불균등도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 정도를 영농지대별로 분해하여 보면 1995년에는 중간지역 농가에서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가장 높고, 도시근교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000년의 경우는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도시근교지역에서 가장 높고, 산간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5년 이후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증가하였는데 도시근교지역의 농가계층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농가소비함수 추정을 위해서 통계청의 2000년, 1999년 농가경제조사 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 2개년 연속 조사된

2,940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가경제조사 중 일계부에서 농가의 가구 현황 및 수입·지출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원부에서 자산 및 부채 현황 관련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소비함수모형은 통상최소자승법(OLS)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유동성제약 가정하의 모형 추정 시는 OLS와 비선형 제약하의 2SLS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2SLS 추정 시 가처분소득의 도구변수는 전기 소비, 전기 소득, 전기 순자산, 전기 경지면적, 전기 소유면적이다.

농가소비함수 추정 결과 소득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계소비성향은 0.22~0.26으로 추정되었다. 순자산 증가는 소비지출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산형태별로는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높아 소비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동자산은 단기소비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가계성 부채와 생산성부채 모두 단기소비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특히 가계성 자금용으로 차입되는 가계성 부채가 소비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와 농업경영자금 등으로 차입되는 생산성 부채도 자산 증가를 통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증가는 연간 33~55만원의 가구소비지출액을 증가시켰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4~6만원씩 감소하였다. 가구주의 학력도 가구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 관련 정보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상위 소비수준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가의 유형변수로 투입된 지대구분 변수는 농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겸업농가의 경우 다른 농가에 비해 가계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 밖에 농가 중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농가의 비중은 22~24%로 추정되었으며, 이 비중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농가그룹별 소비함수 추정 결과 노령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은 0.31로 비노령농가의 0.19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당기 가처분소득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액 증가분은 노령가구가 78만원인 반면, 비노령가구는 41만원으로 노령가구가 크게 높다. 이는 가구원이 대부분 50대 이하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범위에 속해 있으며 연령 구성상 노령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주 학력은 노령가구에 비해 비노령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구주 성별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구주 연령에 대해서는 노령가구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20~60세까지는 대체로 생애소득가설의 소비지출 증가 범위에 있어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잉여 적자가구의 소비함수 추정 결과 농가잉여 적자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 증가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잉여 적자가구의 경우 잠재소비 수준이 소득제약하의 현재 소비보다 크므로 소득 및 자산이 증가할 때 소비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구원 수 증가, 가구주 학력, 취업 가구 등은 농가잉여가 흑자인 농가의 경우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나, 농가잉여가 적자인 가구는 소비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연령 증가 시 소비지출 감소 폭은 농가잉여 적자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 구분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소비 행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지출형태별로는 서비스(0.20) > 비내구재(0.023) > 내구재(0.017)의 순서이며, 지출 목적별로는 선택재(0.200) > 필수재(0.043)이었다. 순자산의 증가도

지출 형태별로는 서비스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필수재보다 선택재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 증가시 비내구재 지출은 가구당 40만원 정도, 내구재 지출은 20만원 정도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 지출 증가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 목적별로는 선택재 지출은 43만원 감소하고 필수재 지출이 8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은 필수재에 비해 선택재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형태별로는 고학력가구일수록 서비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감소하는 지출 형태는 서비스, 내구재, 비내구재 순서이며, 목적별로는 선택재가 필수재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대별로는 도시근교지역 농가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내구재 지출이 16만원 정도 많고 비내구재 지출이 37만원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교지역 농가의 경우 도시지역 문화생활의 영향을 가장 많아 주거비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겸업가구는 다른 영농형태의 가구에 비해 특히 서비스 형태의 지출이 106만원 정도 많으며 지출 목적별로는 필수재 55만원, 선택재 72만원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가소비 분석의 함축성

농가소득과 소비에 관한 다른 나라의 연구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소비가 농가소득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도시근로자 가구나 일본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보나 소득안전망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농가 소비는 지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소비구조도 도시근로자 가구처럼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항목별 소비지출 구조나 형

태별, 목적별 소비지출 패턴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와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석 결과 집단 내 불균등도가 집단 간 불균등도보다 훨씬 커서,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분포와는 달리 소비지출 분포의 불균등도는 농가 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소비함수 추정 결과 농가소비는 당기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산 및 부채 등 순자산 변동에 유의적으로 반응하므로 농가 소득 확대를 통한 효용 증진을 위해서는 단기 소득보전 정책 뿐만 아니라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금융·재정정책이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농가의 신용력 제고 및 금융창구 확대, 투융자 지원 등 금융·재정관련 정책은 단기 소비는 물론 중장기 소비수준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은 0.22~0.26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특정 연도에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경우 소비 증가보다 생산 및 자산 확대 등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한계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은 역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소비감소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감소와 부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 도시가계나 일본 농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크게 불안정하므로 한계소비성향 저위가 투자 감소와 부채 증가를 결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유동성제약은 부채상환부담, 낮은 신용평가 등으로 자유롭게 차입하지 못하여 소비의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농가 중 22~24%는 이러한 상황 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가잉여가 적자 상태에 처한 가구나 노령가구에 대한 소비함수 추정 결과 다른 농가 그룹과 소비 행태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농가잉여 적자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비 확대 효과

가 타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및 금리차별화 정책 등은 소비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령가구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정책보다 소득지원 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가 그룹별로 소비 행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정책 대상을 차별화 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때 농가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지출 항목별 소비함수 추정 결과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의 지출항목별뿐만 아니라 필수재, 선택재의 목적별로 농가소비 행태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나 자산의 변동에 크게 영향 받는 항목은 지출 형태별로는 서비스, 지출목적별 구분으로는 선택재이며, 이들 항목의 경우 향후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소비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1.

농가 소비지출의 수요 시스템 분석

1. 분석모형

농가 소비지출 항목별로 가격 수준이 변하거나 전체 소비지출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각 항목별 소비지출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준이상 수요체계모형(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 모형을 사용하여 농가 소비지출에 대한 지출 수요분석을 실시하였다.

준이상 수요체계모형은 수요함수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출수요분석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AIDS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quad w_{it} = \alpha_{i+} \sum_j \gamma_{ij} \ln p_{jt} + \beta_i (\ln x_t - \ln P_t)$$

$$(2) \quad \ln P_t = \alpha_0 + \sum_j \alpha_j \ln p_{jt} + \sum_i \sum_j \gamma_{ij} \ln p_{it} \ln p_{jt}$$

여기서 w_{it} 는 각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을 의미하며 p_{jt} 는 지출항목별 가격수준을, x_t 는 소비지출액 수준을 나타낸다. $\ln P_t$ 는 가격지수이다.

위의 준이상 수요체계모형은 가격지수인 $\ln P_t$ 를 식 (1)에 대입하여 추정할 경우 비선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실제 추정 시 $\ln P_t$ 대신에 다음과 같은 Tornqvist-Theil의 가격 지수를 사용하여 선형화된 AIDS 모형을 추정하였다..

$$(3) \quad \ln P_t = \frac{1}{2} \sum_i (w_{it} + w_i^0) \ln \left(\frac{p_{it}}{p_i^0} \right)$$

여기서, w_i^0 와 p_i^0 는 표본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준이상수요함수의 바람직한 성질들은 다음과 같이 지출함수의 파라미터들간의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파라미터간의 관계식을 감안하여 지출함수를 추정하게 된다.

$$(가합성) \quad \sum_i \alpha_i = 1, \quad \sum_j \gamma_{ij} = 0$$

$$(4) \quad (동차성) \quad \sum_j \gamma_{ij} = 0$$

$$(대칭성) \quad \gamma_{ij} = \gamma_{ji}$$

모형추정결과로부터 각 지출항목에 대한 자체가격 및 교차 가격탄력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였다

각 지출항목의 가격 변화에 대한 지출의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5) \quad \varepsilon_{ij} = -\delta_{ij} + [\gamma_{ij} - \beta_i (w_j - \beta_j \ln(x/P))] / w_i$$

여기서, $i=j$ 이면 $\delta_{ij}=1$, $i \neq j$ 이면 $\delta_{ij}=0$ 인 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가계비 지출수준이 변할 때 각 지출항목별 지출수준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출탄력성은 $\varepsilon_i = 1 + \beta_i / w_i$ 로 계산된다.

2. 분석자료

1991-2000년 농가경제통계의 월별 항목별 소비지출액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지출 항목은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이미용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기타잡비 등 10개 항목이다.

가격 자료는 소비지출 각 항목별 가격 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의 항목별 월별 농가구입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3. 분석결과

반복적인 의사비상관 회귀분석법(iterative SUR)을 사용하여 AIDS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자체가격 및 교차가격, 지출탄성치는 다음과 같다.

가계비지출 중 가격 비탄력적인 지출항목은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이미용비, 보건의료비, 기타잡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격 탄력적인 가계비 지출항목은 광열수도비, 교육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소비지출 중 지출탄력적인 지출항목은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인 반면, 지출비탄력적인 지출항목은 음식물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주거비, 이미용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기타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 농가 소비지출 항목별 가격 및 지출탄력성 추정 결과

	자체가격 및 교차가격탄력성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0.8804	-0.0172	0.0338	0.0017	0.0158	-0.0123
광열수도비	-0.1566	-1.0508	-0.0863	0.0756	0.0106	0.4501
교육비	0.4507	-0.5525	-1.7568	-0.0566	0.2416	0.5612
교양오락비	-0.1837	0.1114	-0.0550	-0.9287	-0.0531	-0.6225
주거비	-0.2248	0.1815	0.8783	-0.2034	-0.4848	-1.1529
피복신발비	-0.4751	1.5654	0.3148	-1.0140	-0.1704	-1.7067
이미용비	0.2317	1.0914	0.1787	-0.0647	-0.0757	-0.6340
보건의료비	-0.0889	0.1510	0.8120	0.2469	-0.2005	-0.3680
교통통신비	-0.2300	-0.7658	0.2166	0.3323	-0.0270	0.6795
기타잡비	-0.4117	-0.6781	-0.4847	0.5498	0.1392	0.2567

	자체가격 및 교차가격탄력성				지출탄력성
	이미용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기타잡비	
식료품비	0.0269	0.0166	0.0018	-0.0069	0.9708
광열수도비	0.1932	0.0132	-0.2390	-0.1826	0.9799
교육비	0.1987	0.3555	-0.4586	0.0584	0.8092
교양오락비	-0.0582	-0.0009	0.1738	0.2634	1.5234
주거비	-0.3064	-0.3200	-0.2131	0.8499	0.9290
피복신발비	-0.3828	0.0626	0.3751	0.4684	0.9043
이미용비	-0.3204	-0.2707	0.6085	-1.7414	0.9859
보건의료비	-0.6837	-0.8617	-1.0251	1.0159	1.0230
교통통신비	0.0754	-0.2230	-1.1789	0.1444	0.9451
기타잡비	-0.8090	0.1069	0.7759	-0.4062	0.8952

부록 2.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요인분해 방법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요인분해는 ①소비지출항목별로 요인분해하거나 ② 구성집단별로 분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1. 불균등도의 지출항목별 분해

S_f 를 지출항목 f 가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미치는 절대적인 기여분이라고 하면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식(3)과 같이 지출항목별 기여분의 합계로 표현된다.

$$(3) \quad I_c = \sum_f S_f$$

S_f 를 전체 불균등도 I_c 로 나누면 상대적인 기여도, 즉 s_f 가 식(4)와 같이 도출된다.

$$(4) \quad s_f \equiv \frac{S_f}{I_c} \quad \text{s.t.} \quad \sum_f s_f = 1$$

s_f 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Shorrocks(1982)와 같이 s_f 는 전체 소비지출 x 를 항목별 지출 x_f 에 회귀분석한 회귀계수, 즉 식(5)로 정의하였다.

$$(5) \quad \widehat{s}_f = \frac{\text{cov}(x, x_f)}{\sigma^2(x)}$$

불균등도 지수로 I_2 를 사용한다면, S_f 는 다음과 같이 식(6)으로 표현된다.

$$(6) \quad S_f = s_f \cdot I_2 = \rho_f \cdot n_f \sqrt{I_2 \cdot I_{2f}}$$

단, ρ_f : 지출항목 x_f 와 전체지출 x 의 상관계수

n_f : 지출항목 x_f 의 전체지출 x 에 대한 비율 ($\equiv \frac{\mu_f}{\mu}$)

2.2. 지출불균등도의 구성집단별 분해

전체 불균등도는 식 (7)과 같이 집단 간 불균등도와 집단 내 불균등도로 분해될 수 있다.

$$I_c = \sum_k v_k (\lambda_k)^c I_c^k + \frac{1}{c(c-1)} \sum_k v_k [(\lambda_k)^c - 1], \quad c \neq 0, 1$$

$$(7) \quad I_0 = \sum_k v_k I_0^k + \sum_k v_k \log\left(\frac{1}{\lambda_k}\right)$$

$$I_1 = \sum_k v_k \lambda_k I_1^k + \sum_k v_k \lambda_k \log \lambda_k$$

단, I_c^k : k 집단의 소비지출 불균등도 지수

v_k : k 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equiv \frac{n_k}{n}$)

λ_k : k 집단 평균소비지출의 모집단 평균소비지출에 대한 비율
($\equiv \frac{\mu_k}{\mu}$)

식 (7)에서 좌변은 모집단 전체의 불균등도를 나타낸다. 우변의 첫째 항은 개별 집단 내의 불균등도의 가중합으로 집단 내(within-group)의 불균등도를, 그리고 우변의 둘째 항은 집단 간(between-group)의 불균등도를 나타낸다.

ABSTRACT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Rur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ur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with the 1990~2000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microdata conduct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 Fishery and Bureau of Statistics. The research topics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e (1) relationship between farm income and farm consumption (2) comparis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 between rural households and urban households (3) difference in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 by the type of rural households (4)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rur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5) determinants of rural household consumption.

Farm consumption is more stable than farm income. However,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from income is less stable for Korean rural households rather than for Korea urban households or Japanese rural households.

For the past 11 years, the structure of farm consumption has been improved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total consumption level. The shares of expenditure on food, housing and clothing have decreased, while the shares of expenditure on health, medical car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increased over last 11 years. Also, the shares of expenditure on necessities, nondurable goods and service goods have risen as the quality of rural life has been improved with the expansion of work related to household services, and introduction of urban life-style in the rural areas.

The total consumption level and the share of its

compon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age of rural household head and the size of farm income and they are different by the farming type and the location of rural households, as well.

For past 11 years,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farm consumption has not showed much change compared with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farm income, while rural inequality is smaller than urban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expenditure. The consumption component which has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 total consumption inequality is the expenditure on social fellowship and followed by education and other expenses. On the other hand, the consumption component with the smallest contribution to the total consumption inequality is the expenditure on clothing and footwares, and followed by fuel, water and leisur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 of farm consumption function, farm consumptio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not only farm income but also net farm asset.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from farm income is estimated to range from 0.22 to 0.26. The farm households with more household members and higher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head have larger farm consumption compared with other households. In addition, part-time farm households have higher farm consumption than other farm households.

The ratio of farm household that are liquidity-constrained or that do not behave according to the 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 is estimated to range from 22 to 24 percent.

We estimate farm consumption function by the household type and the type of expenditure. Estimated MPC from farm income is relatively larger for aged rural households than for non-aged rural households. Marginal impact of farm income or net farm asset is larger for rural households with deficit rather than for rural households with surplu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head, and being

part-time farm household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farm consumption of rural households with surplus, while they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farm consumption of rural households with deficit.

According to estimation of farm consumption function by the type of expenditures, farm income or net farm asse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nly expenditure on services and necessities among several types of expenditure.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share of the expenditure on these types of goods sharply rises as the level of farm income increases.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farm consumption analysis are the following: first, income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improvement of farm income for the stability in farm consumption; second, income and financial policy have effects on not only current farm consumption but also future farm consumption; third, because farm consumption pattern is different by the type of rural household, differentiated policy should be provided for each different type of household to maximize the welfare of rural households.

Researcher: Sung-Yong Kim, Kyei-Im Lee
E-mail address: sykim@krei.re.kr

참 고 문 헌

- 김병호, 임현준. 2001. “소비의 장기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분석』 7(4).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 김병화·문소상. 2001. “주가와 소비의 관계분석.” 『경제분석』 7(1).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 신관호, 주원. 2002. “소득불확실성이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효과.” 『경제분석』 8(1).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 유병호. 1995. “우리나라 농가의 가계지출 행태에 관한 연구: 연도별 변화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36(1).
- 이명훈. 1994. “가계소비의 변동과 유동성 제약.” 『조사월보』, 한국은행
- 차은영. 1991. 『한국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추정과 분석』, 제도·정책연구자료 9120.
- 차은영. 1999. “유동성제약과 향상소득 가설: Micro Data 분석.” 『경제학연구』 48(1).
- 최은숙. 1986. “한국농가의 소비지출 유형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비목별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27(1).
- 최은숙. 1990. “우리나라 소비지출 유형의 변화: 소비지출함수의 추정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1(1).
- 황의식, 박성재. 2000. “농가부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향 모색.” 『농촌경제연구』, 41(2).
- Akita, T., R.A. Lukman, and Y. Yamada. 1999.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Expenditures in Indonesia: A Theil Decomposition Analysis.” *The Developing Economics* 37: 197-221.

- Banks, J., R. Blundell, and A. Lewbel. 1997. "Quadratic Engel Curves and Consumer Deman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9: 527-539
- Blundell, R., P. Pashardes, and G. Weber. 1993. "What Do We Learn About Consumer Demand Patterns From Micro-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83: 570-597.
- Browning, M., and T.F. Crossley. 2001. "The Life-Cycle Model of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 3-22.
- Bourguignon, F. 1979. "Decomposable Income Inequality Measures." *Econometrica* 47:901-920.
- Chen, K.Z., K.D. Meilke, and C. Turvey. 1999. "Income Risk and Farm Consumption Behavior." *Agricultural Economics* 20: 173-183.
- Hayashi, F. 1985. "The Effect of Liquidity Constraints on Consumption: A Cross-Sectional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0: 183-206.
- Jenkins, S.P. 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86." *Economica* 62: 29-63.
- Langemeier, M.R., and G.F. Patrick. 1990. "Farmers'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An Application to Illinois Grain Farm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2: 309-316.
- Langemeier, M.R., and G.F. Patrick. 1993. "Farm Consumption and Liquidity Constrain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5: 479-484.
- Lerman, R.I., and S. Yitzhaki. 1989. "Improving the Accuracy of Estimates of Gini Coefficients." *Journal of Econometrics* 42: 43-47.

- McGregor, P., and V.K. Barooah. 1992. "Is Low Spending or Low Income a Better Indicator of Whether or Not a Household is Poor: Some Results from the 1985 Family Expenditure Survey." *Journal of Social Policy* 21: 53-69.
- Mookherjee, D. and A.F. Shorrocks.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s in UK Income Inequality." *Economic Journal* 92: 886-902.
- Mullen, J.D., R.A. Powell, and B.F. Reece. 1980. "The Income and Consumption Experiences of a Sample of Farm Families."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24: 268-282.
- Ohtake, F., and M. Saito. 1998. "Population Aging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Japa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4: 361-381.
- Phimister, E. 1995. "Farm Consumption Behavior in the Presence of Uncertainty and Restrictions on Credit."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7: 952-959.
- Shorrocks, A.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93-211.
- _____. 1980. "The Class of Additively Decomposable Inequality Measures." *Econometrica* 48: 613-25.
- Slesnick, D. 1994. "Composition, Needs and Inequalit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5: 677-703.
- Zeldes, S.P. 1989. "Consumption and Liquidity Constrai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305-346

연구보고 R438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2. 12.

발 행 2002.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2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ISBN 89-89225-27-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